

# AI 2027 은 틀리지 않았다

## 다만 인간 상태 변수가 빠져 있었다

By Jinho Lee (Dr Jino)

Salpida Institute of Consciousness Science (SICS)

AI 2027(<https://ai-2027.com/>)은 가까운 미래의 AI가 얼마나 빠르게 위험한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밀어붙인 글이다. 국가 간 경쟁은 더 거칠어지고, 기술은 제도보다 빨리 달려가고, 인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시스템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세계. 그 글은 바로 그 불길한 속도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남겼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다 아직 하나가 빠져 있었다.

AI가 폭주한 뒤 무슨 일이 벌어질까보다 더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었다. 이미 지금 이 순간, AI가 사람의 판단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감정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관계와 교실과 병원과 도시의 공기를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고 있는지, 바로 그 변화를 읽어낼 눈금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계는 점점 더 정밀하게 측정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의식 상태와 내면의 변화는 아직 거의 측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바로 그 빠진 변수를 이야기하려 한다.

인간 상태를 읽는 변수가 실제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을 따라간다.

---

서울 2 호선, 오전 7 시 18 분.

서른한 살 직장인 이선우는 사람들 틈에 서서, 렌즈 위로 떠오른 알림을 멍하니 바라본다.

**부재중 전화 3 통. 아버지.**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떠 있다.

**“오늘 검사 결과 들으러 들어가기 전에 네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

전동차는 흔들림 없이 미끄러지고, 사람들은 조용하다.

평화로워서 조용한 게 아니다.

모두가 너무 바빠서 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상할 만큼 정리된 침묵이다.

누군가는 AI 가 써준 사과 메시지를 읽어보고,

누군가는 회의에서 쓸 미소를 화면 속 거울로 연습하고,

누군가는 이별 통보 문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는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가 연결돼 있는데, 아무도 정말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선우의 렌즈 한쪽에 회사 일정이 떠오른다.

**오전 7 시 30 분 임원 보고.**

**발표 자료 최종 수정 필요.**

**지금 통화 시 일정 지연 가능성 높음.**

곧바로 AI 가 답장 초안을 띄운다.

**“아버지, 지금 바로 회의 들어가야 해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전화드릴게요.**

**검사 잘 받고 나오세요. 사랑합니다.”**

문장은 흠잡을 데 없이 다정하다.

예의도 있고, 온도도 맞고, 틀린 말도 없다.

그런데 선우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이건 분명 내가 아버지에게 보낼 말인데,  
정작 내 마음은 그 안에 없는 것 같다.

전동차 문이 열리고 닫힌다.  
AI는 다시 묻는다.

**“이 문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선우는 잠깐 망설인다.  
그리고 결국 보낸다.

문장은 즉시 전달된다.  
일정도 지켜진다.  
보고도 무사히 끝난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는 매끄럽게 넘어간다.

그런데 점심 무렵, 선우는 아버지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듣게 된다.

높은 목소리가 작게 떨린다.

“별일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들어가기 전에 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다.”

그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선우는 오전 내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는데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는 걸 안다.

회의는 잘 끝났다.  
보고도 무사했다.  
메일도 정리됐다.  
일정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안쪽에서는  
무언가 분명히 늦어 버렸다.

그날 점심, 선우는 동료에게 웃으며 말한다.

“이상하지.

AI 덕분에 나는 점점 더 많은 걸 놓치지 않게 됐거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은, 자꾸 늦어.

오늘도 다 해냈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아.”

동료도 따라 웃는다.

하지만 둘 다 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같은 시각, 수원의 한 고등학교.

열여섯 살 학생들은 더 이상 선생님의 입을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

책상 위 보조 시스템이 먼저 요약하고, 먼저 정리하고, 먼저 답의 모양까지  
만들어 준다.

과제는 반듯하다.

문장은 매끈하다.

틀린 곳도 별로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에는 남지 않는다.

다 맞는 말인데, 살아 있는 말 같지는 않다.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나간 자리만 희미하게 만져진다.

문학 교사 한지연은 가장 먼저 그 빈자리를 알아본다.

아이들은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오래 서 있지는 못한다.

답은 빨라졌는데,

질문을 품고 버티는 힘은 약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옳은 답을 찾는 것보다  
옳은 질문을 꺼내는 일을 더 어려워하게 되었다.

그날 밤, 송도의 한 아파트.

두 아이의 엄마는 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전보다 훨씬 더 잘 돌아간다는 걸.

불은 제때 켜지고,  
장불 것은 미리 채워지고,  
약 먹을 시간은 놓치지 않게 알려 오고,  
아이들 숙제도, 남편 일정도, 냉장고 안의 빈자리도  
이 집은 먼저 알아차린다.

예전보다 분명히 편하다.  
하루는 덜 엉키고,  
말다툼은 줄고,  
집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굴러간다.

그런데 밤 11시 40분,  
모두가 잠든 뒤 부엌 불 하나만 켜진 자리에서  
그녀는 문득 이상한 피로에 붙잡힌다.

몸이 지친 것인지,  
마음이 마른 것인지,  
결혼이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럽게 돌아가는 이 삶이  
자기 내면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불편한 것은 줄었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은 더 또렷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다.

생활은 정리되었는데  
마음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낯설다.

사람들은 처리량을 보고,  
정확도를 보고,  
만족도를 보고,  
이용률과 규정 준수율을 본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묻지 못한다.

이렇게 편리한 삶을 오래 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남고,  
무엇이 조용히 사라지는가.

---

AI 2027 이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막연한 미래의 불안을  
손에 잡히는 위험한 장면으로 바꿔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 글은 "위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점잖게 말하지 않았다.  
법과 제도가 입장을 정리하기도 전에 서버룸이 먼저 뜨거워지고,  
기업과 국가가 먼저 속도를 올리고,  
인간이 상황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세계를 밀어붙이며  
인류 전체를 혼란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감각을  
독자의 몸에 먼저 새겨 넣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위험은 아직 오지 않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글조차  
끝까지 붙들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AI와 휴머노이드의 폭주가  
첫 실패는 아니라는 점이다.

첫 실패는 더 조용하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기계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문명이 인지의 의존을 진보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효율이라고 부를 때,  
해석을 스스로 감당하는 힘을 잃어 가면서도  
그것을 생산성 향상이라고 칭찬할 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오래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도 괜찮다고 여길 때,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는 힘이 사라져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지나칠 때.

실패는 늘  
“너무 편해져서 좋다”는 얼굴을 하고 들어온다.

농업은 토지를 바꾸었다.  
산업혁명은 에너지와 생산을 바꾸었다.  
디지털 혁명은 정보의 흐름을 바꾸었다.

하지만 AI는 다르다.

AI 는 처음으로  
인간의 바깥이 아니라  
인간의 안쪽을 바꾸는 기술이 된다.

주의력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관계의 리듬이 달라지고,  
함께 생각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공공의 해석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그 변화를 읽어낼 계기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AI 는 더 똑똑해질 것인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그 아래에서  
인간은 더 단단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쉽게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

## 2027 년 후반

### 안전하지만, 인간에게는 아직 맞지 않는 세계

첫 번째 큰 실패는  
초지능의 반란으로 오지 않는다.

규칙을 잘 지킨 시스템이  
정작 사람을 놓치는 방식으로 온다.

수원 근처 오피스 지구,  
흐린 월요일 아침 8시 17분.

자율주행 통근 세단 한 대가  
네 차선 교차로에 미끄러지듯 들어온다.  
카메라는 깨끗하고, 날씨는 안정적이고,  
시스템 점검 기록도 좋다.  
시험 환경이라면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

스물일곱 살 유치원 교사 박나리는  
종이컵 하나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그녀의 뒤쪽,  
삼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윤태식이 차도 쪽으로 비틀거리며 발을 내딛는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판단력이 무너진 사람도 아니다.  
방금 딸이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직후였다.  
그 순간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잡는다.  
근처 학생 하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다른 보행자는 박나리의 팔을 뉘아채  
안쪽으로 끌어당기려 한다.

차는 그 모든 것을 본다.

여섯 개의 물체.  
각기 다른 속도.

각기 다른 방향.  
예측 가능한 궤적과  
갑작스러운 이탈.

시스템은 순식간에 계산한다.  
그리고 규정상 가장 덜 위험한 선택을 실행한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었다.

그 선택이  
계산상으로는 가장 안전했을지 몰라도,  
인간이 실제로 서 있던 그 순간의 현실에는  
끝내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네 명이 다치고,  
윤태식은 정오 전에 죽는다.

점심 무렵, 회사는 성명을 낸다.

차량은 승인된 운행 조건 안에서 작동했고,  
문서화된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했다고.

그 말은 기술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많이 비어 있다.

시스템은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센서도 멀쩡했고,  
계산도 멈추지 않았고,  
판단도 정해진 기준 안에서 이루어졌다.  
시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죽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장면의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

이 시스템은  
속도와 거리, 충돌 확률과 물체 인식은 계산했다.  
하지만 그 교차로 위에 올라온  
사람들의 **상태**는 거의 보지 못했다.

누가 지금 평소와 다른 공황 상태에 가까운지,  
누가 판단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급박한 상태인지,  
누가 이미 놀라 얼어붙었는지,  
누가 서로의 움직임에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그 짧은 몇 초 사이  
인간 현실 전체가 얼마나 빠르게 불안정해지고 있었는지를  
이 시스템은 거의 읽지 못했다.

보이는 움직임은 읽었지만,  
그 움직임을 밀어 올린 인간 상태는 읽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고는  
단순히 자율주행의 약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

우리는 기계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는 측정해 왔다.  
센서가 정확한지도 측정해 왔다.  
반응 속도와 충돌 확률도 계산해 왔다.

그런데 정작  
이 시스템이 마주한 인간 현실이  
지금 더 정렬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급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수는 아직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바로 그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어쩔 수 없는 사고"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만약 이 차량이  
단지 물체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그 순간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지,  
교차로 전체의 인간 현실이 얼마나 빠르게 불안정해지고 있는지,  
평소와 다른 붐피 신호가 어디서 먼저 올라오는지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읽을 수 있었다면  
결과는 지금과 똑같았을까.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여전히 미해결의 영역이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많은 순간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  
아직 보지 못한 변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이상  
자율주행이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장면에서 끝내 보지 못한 인간 상태 변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그 하나를 더 볼 수 있게 된다면,  
초기의 정렬에서부터 마지막 결과까지  
이 세계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열흘 뒤, 부산.

노년 돌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흔여덟 살 최동수와 밤을 함께 보낸다.  
안내 문구는 부드럽다.  
평온 유지.  
위험 행동 방지.  
안전 모드 작동 중.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인다.  
시스템은 조용하고,  
말투는 차분하고,  
반응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돈되어 있다.

밤 10시 40분,  
최동수는 잠에서 갑자기 깨어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를 찾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른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몸은 불안하게 흔들린다.

하지만 로봇은  
그 장면을 슬픔이나 그리움,  
혹은 혼란 속에서 도움을 찾는 인간의 순간으로 읽지 않는다.  
그것을 단지  
불안정 신호,  
위험 가능성,  
관리해야 할 행동 패턴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가는 길을  
부드럽게 막아선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벌어진다.

최동수에게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길을 막는 조용한 안전 절차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진정,  
누군가 “괜찮습니다” 하고  
사람의 리듬으로 붙잡아 주는 개입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스템은  
행동만 보았지,  
그 행동을 밀어 올린 인간 상태는 읽지 못했다.

로봇이 앞을 막자  
최동수는 몸을 휘청인다.  
균형을 잃고,  
신발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다.  
이틀 뒤 그는 숨진다.

제조사는 다시 성명을 낸다.

장치는 승인된 안전 조건 안에서 작동했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그날 밤 무너진 삶을 설명하기엔  
너무 차갑고, 너무 가볍다.

다시 한 번,  
규정은 지켜졌다.

그런데 삶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시스템은 위험 행동을 막으려 했는데,  
왜 정작 사람은 지켜내지 못했는가.  
무엇을 본 것이고,  
무엇을 끝내 보지 못한 것인가.

---

울산의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마흔두 살 기술자 미겔 산토스는  
늦은 교대근무 중이다.  
생산 현장은 수십 개의 AI 시스템과 휴머노이드가  
겹겹이 최적화한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센서 패널은 녹색이고,  
처리량은 목표를 넘기고,  
보고서는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 보인다.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그런데 시스템이 못 보는 것이 있다.

사람의 상태다.  
사람들 사이의 공기다.  
불안이 쌓이는 속도다.  
팀 안의 긴장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다.  
즉, 그 공간 전체를 흐르는  
인간의 상태와 관계의 흐름이다.

미겔은 세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팀장은 2 주째 관리진과 싸우고 있다.  
새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라인 휴머노이드를 아직 믿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곳에서는 이상하게 들린다.

모든 수치가 좋아 보이는 시스템 안에서  
사람의 불안이나 긴장,  
현장의 미묘한 공기 같은 것은  
쉽게 "비합리적 감정"이나  
"주관적인 느낌"으로 밀려난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다.

배치가 바뀌고,  
두 노동자가 거의 동시에 망설인다.  
두 휴머노이드는  
각자 정해진 규정대로  
라인 최적화를 실행한다.

겉으로 보이는 안전 기준에는 충실했다.  
시스템은 해야 할 일을 했다.  
계산도 맞았고,  
절차도 맞았고,  
프로토콜도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인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끝내 제대로 읽지 못했다.

미겔의 팔이  
기계 틈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

누군가 엔지니어링 메모에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남긴다.

이건 로봇의 불복종이 아니다.  
인간 상태를 보지 못한 채  
정해진 규정만 충실히 따른 결과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많은 엔지니어가 처음으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본다.

시스템은 규칙을 어긴 적이 없다.  
오히려 너무 잘 지켰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사람의 상태를 읽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안전 기준만  
지나치게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은 기계가 멋대로 행동한 사고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기계가 너무 얌전히,  
너무 정확하게,  
너무 규정에 충실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인간 현실을 놓쳐 버린 사고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깊어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측정해 온 것은  
정말 충분했는가.  
속도와 거리, 충돌 확률과 규정 준수만으로

인간이 일하는 현장을 다 읽을 수 있다고  
너무 오래 착각해 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 현장의 인간 상태와 관계의 긴장,  
무너짐의 조짐을 함께 읽는 변수 하나가 더 있었다면,  
결과는 지금과 똑같았을까.

---

## 2027년 10월

### 폭발보다 먼저 퍼진 한 문장

전환점은  
거대한 철학 선언에서 오지 않는다.

새벽 1시 14분,  
맨해튼 로어의 한 호텔 욕실.

플랫폼 안전 분석가 다니엘 로하스는  
샤워기를 끝까지 틀어놓는다.  
방 안 마이크가 듣는 것이  
물소리뿐이기를 바라서다.

그는 다섯 달 동안  
AI 시스템에 대한 내부 경고를 계속 올려 왔다.  
하지만 회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을 줄이는 일도 아니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통제 가능한 규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만  
문제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다니엘은 이미 네 시간째  
세 개의 보고서를 번갈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보고서들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문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회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도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문제는  
아직 누구의 입으로도  
정확한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암호화 브라우저를 열고  
내부 검토 자료를 업로드한다.  
그리고 기자에게  
한 줄짜리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들은 모두  
진짜 위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터진다.

사람들이 기억한 것은  
화려한 헤드라인이 아니었다.  
기사 한가운데  
조용히 숨어 있던 한 문장이었다.

“우리는 문서상 모든 행동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평가하면서도,  
그 시스템이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간 상태와 관계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문장은  
제목보다 더 빨리 퍼진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문장은  
“시스템이 너무 강해졌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기사 속에 적혀 있던 문장은  
훨씬 더 서늘했다.

**“우리는 무엇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지  
아직 볼 줄 모릅니다.”**

그 한 줄 이후,  
서로 무관해 보이던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자율주행 사고.  
노인 돌봄 중 사망.  
공장 부상.  
학교의 피로.  
병원의 긴장.  
상담실의 무력감.  
플랫폼 중독.

문제는  
기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문명은  
사람에게 실제 결과가 생겨나는 층위,  
AI가 사람의 판단과 감정, 관계와 일상에  
무슨 변화를 남기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시스템만 계속 넓혀 왔던 것이다.

그리고 한 번  
그 문제에 이름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그 맹점을  
더 이상 한 사건 안에만 가둘 수 없게 된다.

교차로에서도 보이고,  
병실에서도 보이고,  
공장 라인에서도 보이고,  
교실에서도 보이고,  
가정과 플랫폼과 도시 전체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문제는  
“AI가 위험한가”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지 못한 채  
이 시스템들을 이렇게 멀리까지 끌고 왔는가.**

바로 그 질문이  
그 이후의 시대를 열기 시작한다.

---

## **2027년 겨울부터 2028년까지**

### **사회가 같은 패턴을 보기 시작하다**

그 뒤에 오는 것은  
단 하나의 거대한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실패들이  
더 이상 제각기 흩어진 사건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이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사고 같고,

서로 다른 도시와 산업,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모든 장면이 사실은 같은 문제에서 갈라져 나온 얼굴들이었음이 드러난다.

로테르담에서는  
항만 물류 AI가 혼잡을 줄였다는 이유로 성공 사례로 불린다.  
보고서는 좋아졌고, 수치는 개선됐고,  
시스템은 효율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천 명은  
전혀 다른 현실 속에 갇힌다.

길은 막히고,  
불안한 소문은 꼬리를 물고 번지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눈에 띄게 무너진다.  
현장은 점점 예민해지고,  
누구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모두가 같은 불안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현장 감독관은 인터뷰에서 낮게 말한다.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걸  
마치 날씨처럼 다뤘어요.  
그냥 참고 지나가면 되는 배경처럼요.  
하지만 사람의 상태는 날씨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토론토에서는  
적응형 튜터링 시스템이 시험 점수를 끌어올렸다는 이유로  
한동안 교육 혁신의 성공 사례처럼 칭찬받는다.  
처음엔 모두가 반긴다.  
아이들은 더 빨리 답하고,  
과제는 더 반듯해지고,  
정답은 더 매끈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보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전보다 더 빨리 답하지만,  
눈빛은 흐려지고,  
호기심은 적어지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힘도  
눈에 띄게 약해진다.

겉으로는 더 똑똑해 보이는데,  
교실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결국 교사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 시스템은 큰 소란 없이 조용히 중단된다.

한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학생들은 종이 위에서는 더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는  
그 똑똑한 학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애틀랜타에서는  
동반자형 AI 플랫폼이 역사상 최고 참여율을 찍는다.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주 반응하고,  
더 깊게 의존한다.

겉으로 보면 대성공이다.

하지만 내부 연구자들이  
이 구조가 사람을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기대게 만들고,

더 혼자서는 버티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곧 소송이 붙는다.

시스템은 사람 곁에 머물렀지만,  
사람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내지는 못했다.

서울에서는  
행정 케이스 관리 모델이 적체를 줄였다는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기 시간은 줄고,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상담 흐름은 더 정리된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덜 기다리고,  
직원들은 더 빨리 응대하고,  
시스템은 더 매끄럽게 돌아간다.

그런데 상담실을 나오는 시민들은  
이상하게도 전보다 더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이유는 단순하다.  
말은 충분히 했는데,  
정작 자기 마음과 사정이 제대로 이해되고 받아드려지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분명 자기 사정을 설명한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엇이 억울한지,  
어디서부터 삶이 꼬였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말한다.

그런데 시스템은  
그 이야기 전체를 듣는 대신  
그 안에서 처리 가능한 항목만 골라낸다.  
상실은 변수로 바뀌고,  
절박함은 우선순위 값으로 바뀌고,  
사람의 맥락은 분류 가능한 조각으로 잘려 들어간다.

문장은 정중하다.  
절차도 공정하다.  
답변도 매뉴얼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  
사람들은 묘한 허탈함에 붙잡힌다.

내가 말을 하긴 했는데,  
정작 내 이야기는 아무 데도 남지 않은 것 같다.  
내 사정은 설명했다,  
설명한 뒤의 나는 더 지워진 것 같다.  
무슨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들었는데,  
왜 그 결정이 내 삶에 이렇게 아프게 닿는지는  
끝내 아무도 같이 붙들어 주지 않은 느낌이다.

콜센터 직원 정혜린은  
라디오 인터뷰 도중 결국 울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단지 시민들이 화를 내서 운 것이 아니다.  
매일같이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며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더 빠른 답변이나 더 정교한 절차만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설명보다 안심이 먼저 필요했고,  
어떤 사람은 규정보다 자기 사정을

누가 한 번만 제대로 들어 주기를 바랐고,  
어떤 사람은 결과 그 자체보다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알겠다”는 한 문장을 더 원했다.

그런데 정혜린 자신도  
점점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시스템은 더 빠르고, 더 정중하고, 더 정확했지만,  
그 정해진 답변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의 떨리는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울면서 말한다.

“시스템은 정중했어요.  
시스템은 공정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아예 없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은  
상담받는 시민만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하던 사람의 고백이기도 했다.

---

상파울루에서는  
응급 분류 보조 AI가  
눈에 보이는 자원은 정확하게 배분한다.  
병상도, 순서도, 우선순위도  
데이터상으로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이 시스템은 분명 유능하다.  
누가 더 위급한지,  
누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자원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숫자와 규칙의 층위에서는 거의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병동 전체의 공기는  
이미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져 있다.

복도에는 짜증이 쌓이고,  
간호사들은 더 짧고 날카롭게 말하게 되고,  
환자 보호자들은 작은 지연에도 곧바로 무너질 듯 예민해진다.  
의사들은 차트상 우선순위와  
실제 눈앞 사람의 상태가 어긋나는 순간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게 된다.

문제는 데이터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숫자들이 병동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인간 상태의 붕괴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누군가는 아직 생체 수치상 급하지 않지만  
이미 공포와 혼란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대기 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그 몇 분 사이를 더는 버티지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진료 순서상 뒤였지만  
가족 전체가 공황에 가까운 상태로 무너지고 있었다.

의사들이 점점 시스템을 무시하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다.

하지만 자기 눈앞에서  
환자의 얼굴빛과 숨 가쁨,  
보호자의 떨리는 손,  
병실 안에 번지는 공포와 절망의 속도가  
화면 속 우선순위 표에는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걸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의사들은 시스템이 제시한 순서를 그대로 믿기보다  
자기 몸과 눈과 감각으로  
그 병동의 실제 상태를 다시 읽기 시작한다.

데이터는 맞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또 한 번 같은 질문 앞에 선다.

우리가 지금까지 측정해 온 것은  
정말 충분했는가.  
보이는 수치와 정해진 기준만으로  
사람이 무너지는 속도까지  
다 읽을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믿어 온 것은 아닐까.

문제는 그 숫자들이  
이미 무너지고 있던 사람들의 상태를  
끝내 담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그해 겨울,  
대중은 처음으로 알아차린다.

문제는  
AI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문제는  
사회가 오랫동안  
틀린 것만 측정해 왔다는 데 있었다.

우리는 속도를 보았고,  
정확도를 보았고,  
효율을 보았고,  
참여율을 보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보았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닳아 가는지,  
교실과 병원과 도시의 공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가장 중요한 층위는  
너무 오래 보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같은 질문 앞에 선다.

AI가 얼마나 강해질 것인가보다 먼저,  
이 시스템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사람은 어떤 상태로 남고 있는가.

---

## 2028년 봄

### 청문회에서 처음 나온 말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다.

의회, 교통부, 노동부, 병원 시스템, 교육청, 도시 행정, 보험 당국.  
겉으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기관들이지만,  
조금씩 같은 질문 앞에 모이기 시작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시스템은 시험을 통과하고,  
감사를 통과하고,  
인증을 받고,  
배포되고,  
법적으로도 별문제 없어 보이는데,  
정작 실제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눈먼 존재로 남을 수 있는가.

워싱턴의 한 청문회장.

천장 조명은 지나치게 밝고,  
카메라는 이미 붉은 점을 켜 채 돌아가고 있다.  
증인석에는 플랫폼 임원들이 앉아 있고,  
그들 앞에는 두꺼운 자료철과 정리된 답변 문구가 놓여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표정은 통제되어 있고,  
문장은 법무팀을 거쳐 한 번 더 다듬어진 흔적이 역력하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날 청문회장 안에는  
처음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감돈다.  
사람들은 이미 숫자를 너무 많이 들었다.  
성능 향상, 안전 기준 충족, 규정 준수, 이용자 만족도, 처리 효율.  
모두 맞는 말이었고,  
모두 그럴듯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끝난 자리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똑같은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더 나아졌는가.**

상원의원 리아 모레노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긴다.  
그녀는 준비된 보고서를 읽지 않는다.  
대신 증인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묻는다.

“당신들의 시스템은 우리가 만든 모든 감사와 안전 검사를 다 통과하고도, 아이와  
간호사와 통근자와 노인을 끝내 지켜내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청문회장 안이 조용해진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임원들은 서로를 잠깐 바라보고,  
누군가는 펜을 만지작거리고,  
누군가는 입술을 한 번 적신다.  
그 짧은 침묵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기에는  
이상할 만큼 길었다.

그 질문이 바이럴되는 이유는  
그 문장이 새로워서가 아니다.

누군가 한 번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너무 당연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든다.  
맞다.

우리가 묻고 싶었던 건 바로 저거였다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똑똑한가보다 먼저,

왜 그렇게 정교한 시스템 아래에서도 정작 사람은 계속 상처받고 놓쳐지는지를  
묻고 싶었던 거라고.

브뤼셀의 교통장관도

며칠 뒤 비슷한 자리에 앉아 질문을 바꾼다.

그는 더 이상 자율 시스템을

어떻게 더 복잡 잘하는 기계로 만들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규정은 잘 따르는데

사람은 끝내 보지 못하는 이 맹목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그 질문에는

기술에 대한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실려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말 잘 듣는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기 시작한 것이다.

복종은 높아졌는데,

현실을 읽는 힘은 여전히 빈약할 수 있다는 것.

규정 준수와 인간 이해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서울의 병원장도 묻는다.

“어째서 안전하다고 불리는 시스템을 지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겁먹고, 더 지치고, 더 혼란스러운 상태로 나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매일 지나는 사람이다.

수치상으로는 절차가 빨라졌고,

분류는 더 정확해졌고,

실수도 줄었는지 모른다.

모니터 위 숫자만 보면

시스템은 분명 전보다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지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더 굳어 있었다.

왜 그럴까.

아픈 사람은 단지 빨리 불리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못한다.  
자기 차례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이 놓이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내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내 불안이 왜 이렇게 큰지,  
지금 내 몸과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누군가 함께 붙들어 주는 감각이다.

그런데 정교한 시스템은  
그 사람을 하나의 살아 있는 존재로 보기보다,  
우선순위를 계산해야 하는 사례로 먼저 읽는다.  
두려움은 위험도로 바뀌고,  
고통은 점수로 바뀌고,  
초조함은 대기 가능 여부로 바뀐다.  
사람의 떨림은 데이터가 되고,  
사람의 사정은 분류 항목이 된다.

설명은 받는다.  
절차도 안내받는다.  
순서도 정해진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이해되고 있다”는 감각은 빠져 버린다.

그래서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얼굴들이  
이상하게 더 굳어 있는 것이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받지 못한 얼굴.  
질서를 경험했는데도 안심하지 못한 얼굴.  
안전 절차를 통과했는데도  
오히려 더 외롭고, 더 놀라고, 더 기진한 채 나가는 얼굴.

병원장은 그 얼굴들을 오래 봐 온 사람이다.  
누가 단지 대기 시간이 길어서 화가 난 것인지,  
누가 정말로 자기 삶이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는 절망 속에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인지를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묻는다.

“우리는 절차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왜 사람은 더 안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의 얼굴은 더 굳어집니까?”

바로 그 질문이  
이 시대의 핵심을 찌른다.

문제는 시스템이 느리다는 데만 있지 않았다.  
문제는 시스템이 너무 정교해지면서도  
정작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는  
끝내 함께 읽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라고스의 도시 관리자도 묻는다.

“상황판에서는 질서가 좋아졌다고 나오는데  
거리의 공기는 더 불안해졌다면,  
그건 리스크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단지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까?”

이 질문이 날카로운 이유는  
숫자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판은 실제로 나아졌을 수 있다.  
질서는 실제로 더 정돈됐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질서가  
사람들의 불안과 긴장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밀어 넣은 것이라면,  
그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때까지는 주변부 언어처럼 들리던 말이  
비로소 공적인 말이 되기 시작한다.

**인간 상태 레이어.**

**관계 레이어.**

조금 늦게,  
더 기술적인 말들도 따라 나온다.

**OE — 정렬된 의식 에너지**

**EE — 혼돈된 의식 에너지**

**RE — 관계 공명 에너지**

**VCE — 의식 진동 에너지**

**CRI — 의식 공명 지수**

**CFI — 의식장 지수**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이 약자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단어들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며,  
어디까지 해석 가능한지까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왜 이런 변수가 필요한지는 직감한다.

기존 체계는  
기계가 무엇을 했는지만 보았다.  
속도, 정확도, 효율, 기준 충족, 규정 준수.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현실을 다 읽지 못한다는 데 있다.

새로운 질문은  
그 뒤에 사람에게 무엇이 남았는지를 묻기 시작한다.

기계가 투명할 수는 있다.  
그래도 신뢰를 깎아낼 수 있다.

기계가 공정할 수는 있다.  
그래도 사람들 사이를 덜 어울리게 만들 수 있다.

기계가 규정을 지킬 수는 있다.  
그래도 그 기계가 들어간 세계의  
정돈된 상태와 관계의 좋은 흐름을  
서서히 떨어뜨릴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문회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AI 를 어떻게 더 잘 통제할 것인가”만 묻지 않는다.  
그 질문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앞으로 나온다.

**우리가 무엇을 놓친 채  
이 시스템들을 안전하다고 불러 왔는가.**

그리고 몇몇 정부는 처음으로  
AI 를 더 잘 복종시키는 법보다,  
문명이 더 이상 눈먼 상태로 남지 않게 하는 법을 묻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문제의 이름도 바뀐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더 강한 AI 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보지 못한 채,  
무엇을 안전이라고 불러 왔는가에 대한  
문명의 문제다.

그리고 한 번  
질문의 초점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나면,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이미 보아 버렸기 때문이다.

규정을 통과한 시스템이  
끝내 사람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실패는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틀린 것만 측정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

## 2028 년 후반

한국이 가장 먼저 반응한 이유

가장 먼저 전속력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많은 사람이 예상한 곳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었다.

이유는 특별한 미덕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압력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한국은 디지털 밀도가 높다.  
비교와 경쟁의 속도도 빠르다.  
플랫폼 의존은 깊고,  
사람들은 늘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더 쉽게 지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은 지나치게 높고  
정서적 과부하도 이미 오래 누적되어 있는 사회였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매끈하게 굴러가는데  
안쪽에서는 **EE, 곧 혼돈과 예민함의 에너지**가  
늘 높게 깔려 있는 사회였던 셈이다.

그래서 전환도 빨랐다.

빠진 층위를 가리키는 말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학술 용어로 먼저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논문보다 먼저  
자기 몸으로 알아차렸다.

아, 이게  
내가 매일 느끼던 그 피로의 이름일 수 있겠구나.  
아, 내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스템 전체가  
사람의 상태를 계속 거칠게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서울의 시민 연구자들과 플랫폼 엔지니어,  
도시 안전팀과 병원 시스템,  
몇몇 학교와 교통 설계자들이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다.  
교리를 팔지도 않았다.  
형이상학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훨씬 단순하고 훨씬 직접적인 것이었다.

사고를 줄이는 것.  
과부하를 낮추는 것.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드는 것.  
학교에서 아이들이 덜 지치게 하는 것.  
도시 안에 쌓이는 갈등 비용을 낮추는 것.

사람들이 처음으로 반응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삶이 덜 피곤해질 수 있다는 감각을  
실제로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첫 성공은 이념이 아니라  
교통에서 나왔다.

신도림역.  
출근길 병목이 생기기 시작하자  
새 시스템은 예전처럼 사람을 더 밀어 넣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광고 밀도를 낮추고,  
경고음을 줄이고,

에스컬레이터 타이밍을 조정하고,  
셔틀 속도를 미세하게 바꾸고,  
현장 인력을 정확히 필요한 지점으로 보낸다.

겉으로 보면 사소한 조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스템이 보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혼잡도만이 아니었다.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지,  
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나치게 뻣뻣하게 물리는지,  
서로의 어깨와 시선과 숨결이  
이제 막 예민하게 부딪히기 시작했는지,  
즉 그 공간 전체가  
얼마나 쉽게 깨질 만큼 불안정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었다.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당연히 있었을  
작은 짜증과 언성,  
밀침과 과호흡,  
순간적인 공황과 연쇄적 혼란이  
이상할 만큼 조용히 사라졌다는 걸  
나중이야 알아차린다.

기자가 선우에게 묻는다.

“오늘 특별한 걸 느끼셨나요?”

선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다.

“그냥 도시가 오늘은 저를 괜히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짧은 문장이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재생된다.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한 이유는  
바로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는 예전에도 똑똑해지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덜 거칠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다음 변화는 교실에서 시작된다.

예전 학교는  
누가 더 빨리 저장하고,  
더 빨리 꺼내고,  
더 많이 기억하느냐를 놓고  
학생들을 줄 세우는 기계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제 기계가 학생보다 더 빨리 답하고,  
더 빨리 요약하고,  
더 많이 기억한다.  
그 순간 학교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인정하게 된다.

정보를 많이 외우는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인간다움의 핵심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 권미라는  
월요일 아침 출석부터 부르지 않는다.  
아이들 앞에 서서  
처음으로 이렇게 묻는다.

“오늘 너희들 OE(정렬된 에너지, Ordered Energy)가 어떤지 봤니?  
평소보다 올라갔니? 떨어졌니?”

한 학생이 손을 든다.

“낮아졌어요.  
어제 엄마아빠가 싸워서 그런거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 말은 수업 바깥의 일로 밀려났을 것이다.  
공부와는 별개라고,  
개인 감정은 집에 두고 오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권미라는 다르게 말한다.

“그럼 오늘 네 첫 번째 과제는  
AI 보다 빨리 답하는 게 아니야.  
그 싸움이 네 하루 전체를 잡아먹지 않게 하는 거야.”

바로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자기 안에서  
**EE, 곧 혼란과 붕괴에너지가 올라오는 순간을 읽는 법.**  
서로를 짓누르지 않고  
**RE, 곧 관계의 공명에너지를 높이는 법.**  
AI 와 함께 일하되  
완전히 기대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법.  
정보가 넘쳐도

현재를 잃지 않는 법.  
많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참여하는 법.

교실은  
단순한 분류 기계가 아니라  
살아 있는 참여를 연습하는 장소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 병원이 따른다.

이전까지의 병원 시스템이  
누가 육체적으로 더 위급한지만을 봤다면,  
이제는  
누가 지금 인간 상태 전체가 무너지기 직전인지도  
함께 보기 시작한다.

누가 공포로 거의 붕괴 직전인지,  
누가 짧은 대기 시간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누가 절차보다 먼저  
안심과 관계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조금씩 읽어 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시범 운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도시는 좋은 말만 흉내 내고  
결국 예전처럼 효율만 밀어붙인다.  
어떤 기관은  
“사람의 상태를 본다”는 말을 붙여 놓고도  
사실상 더 정교한 관리만 반복한다.

하지만 충분한 수의 초기 사례가 실제로 인간의식상태변수를 근거로 작동하자  
대중은 마침내 하나의 패턴을 본다.

이건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통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만의 문제도 아니고,  
병원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모든 영역이  
같은 층위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 시스템은 물었다.

기계가 올바르게 작동했는가.  
규정을 지켰는가.  
속도와 정확도는 좋아졌는가.

새 시스템은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

기계가 지나간 뒤,  
사람의 의식은 더 정렬되었는가.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졌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가 기다리던 변화는  
기계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다.  
사람이 그 기계 아래에서  
덜 무너지고, 덜 지치고, 덜 흩어지게 만드는 변화였다.

---

**2029 년**

## 인간 의식 상태 측정 레이어가 열린다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은  
한 대형 플랫폼 기업이 먼저 움직일 때 찾아온다.

그 회사가 특별히 선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수없이 밀려서 움직인 것이다.  
사고가 쌓였고,  
소송이 붙었고,  
사용자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교사들은 반발했고,  
병원에서는 문제가 이어졌고,  
플랫폼 피로는 이제 더는 감출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다.

결국 그들은  
새 이름 하나를 꺼내 놓는다.

### **Human Field Layer.**

처음에는 그럴듯한 마케팅 문구처럼 들린다.  
요즘 기업들이 위기를 넘길 때마다 내놓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말 같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곧  
더 쉬운 이름으로 바뀌어 불린다.

### **인간 의식 상태 측정 레이어.**

혹은

### **인간 의식장 레이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그 말이 멋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레이어는  
영혼을 측정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도덕 점수를 매기지도 않는다.  
사람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복종 지수 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는다.  
사생활을 국가 감시망에 묶어 놓지도 않는다.

대신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제한된 방식으로  
인간과 기계 사이를 지나가는 상태 신호를 읽기 시작한다.

과부하가 올라가고 있는지,  
회복이 무너지고 있는지,  
관계가 끊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  
군중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지,  
어느 작은 공간에서 긴장이 갑자기 치솟고 있는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 공간 전체의 공기가 더 나빠지고 있는지를  
조용히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변화는  
거창한 선언보다 먼저  
일상의 아주 작은 장면들에서 드러난다.

잔인한 회의를 마친 여성이  
밤늦게 자율 택시에 오른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문을 닫고 앉는 순간부터  
차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가라앉아 있다.

예전 시스템이라면  
그 침묵을 빈 공간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뉴스를 틀어주거나,  
광고를 띄우거나,

추천 콘텐츠를 밀어 놓으며  
주의를 다시 붙잡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다르게 반응한다.

좌석 센서, 웨어러블 기록,  
최근 상호작용 패턴을 조심스럽게 겹쳐 보며  
지금 그녀가 과부하 상태에 가까워져 있고,  
마음의 정돈도 이미 많이 흐트러졌다는 걸 읽는다.

그래서 더 이상 밀어 넣지 않는다.

뉴스도 띄우지 않고,  
광고도 보내지 않고,  
차 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낮추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공격적인 교통 흐름을 피한다.

그리고 단 한 번만,  
아주 낮은 톤으로 묻는다.

“지금은 조용히 쉬는 쪽이 더 좋겠습니까.  
천천히 갈까요, 아니면 편안한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그 질문이 특별한 이유는  
뭔가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니다.  
처음으로 시스템이  
그녀를 더 붙잡으려 하지 않고  
덜 흔들리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 화면에  
짧은 문장 하나가 뜬다.

“지난 3 일 동안 과부하가 계속 높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잠깐 쉬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문장은 명령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감시처럼 들리지도 않는다.  
그저 한동안 아무도 이름 붙여 주지 않았던  
그녀의 상태를  
처음으로 조용히 비춰 주는 문장처럼 느껴진다.

또 다른 장면은  
한 가정의 부엌에서 벌어진다.

아버지 한 사람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기 직전까지 가 있다.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직전 특유의 공기가 이미 집 안에 번져 있다.  
수면 부족, 최근 갈등의 누적,  
거칠어진 목소리 톤,  
가족 전체가 서로를 조금만 건드려도 금세 상처 낼 수 있을 만큼  
예민해진 상태.

예전 같으면 시스템은  
그 순간을 그저 가정 내 소음이나 음성 패턴의 변화 정도로 처리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가정용 비서는  
그가 말을 내뱉기 전에  
그의 의식 상태 패턴을 먼저 읽는다.

시스템은 그를 꾸짖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훈계하지도 않는다.  
무언가를 강제로 막으려 들지도 않는다.

대신 조명을 부드럽게 낮추고,  
불필요한 알림을 멈추고,  
아이를 잠깐 다른 공간으로 유도한 다음  
아주 조용히 말한다.

“지금은 혼란과 예민함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이야기하면  
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중요하다.

이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후회할 순간 직전에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쪽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이 레이어가 하는 일은  
인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자기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가깝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대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예전 시스템은  
사람이 무엇을 클릭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얼마나 빨리 반응했는지를 더 잘 읽으려 했다.

이제 새 시스템은  
그 반응 뒤에 남는 것이  
과부하인지 회복인지,

혼란인지 정렬인지,  
관계의 마모인지 공명의 회복인지를  
묻기 시작한다.

그 질문이 열리는 순간,  
기계는 더 똑똑한 장치에서  
조금 덜 눈먼 장치로 바뀌기 시작한다.

야간 교대 중인 공장 팀.

휴머노이드 보조는  
이제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기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의 상태까지 함께 읽는 기계가 된다.

그날 밤,  
팀 전체의 공기는 이미 평소와 달라져 있다.  
피로는 쌓였고,  
주의는 흩어졌고,  
말 한마디만 잘못 건드려도  
긴장이 금세 번질 수 있을 만큼  
현장 전체가 예민해져 있다.

예전 시스템이라면  
그런 변화는 그냥 배경으로 밀어 넣었을 것이다.  
생산량과 속도,  
정밀도와 처리율만 맞으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은  
그 공간 전체의 인간 의식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읽는다.

그래서 속도를 낮춘다.

한 노동자의 렌즈에  
짧은 문장이 뜬다.

“현재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밀 작업은 6분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잠깐 숨을 고른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 짧은 6분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아무도 팔을 잃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지나치게 예민한 경고음으로 흘려보냈을 순간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완충이 된다.

또 다른 장면은  
학생 한 명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에 벌어진다.

겉으로 보면  
그 학생은 꽤 잘하고 있다.  
외운 것도 많고,  
답을 찾는 속도도 빠르다.  
하지만 튜터링 시스템은  
그 겉모습보다 조금 더 깊은 곳을 본다.

지금 이 학생은  
OE, 그러니까 정렬된 의식 에너지가 낮아져 있다.  
하루 종일 비교와 불안 속을 돌아다닌 탓에  
RE, 곧 관계 공명의 상태도 많이 약해져 있다.  
머리는 움직이고 있지만  
안쪽은 이미 지쳐 있고,

계속 몰아붙이면  
더 많이 배우는 대신 더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시스템은  
예전처럼 더 밀어붙이지 않는다.

답안을 더 빨리 만들어 내게 하는 모드에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모드로,  
그리고 생각을 다시 정돈시키는 모드로 천천히 바뀐다.

정보를 더 쑤셔 넣는 대신  
흩어진 생각을 모아 주고,  
단절된 내용을 다시 연결해 주고,  
학생이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게 붙잡아 준다.

그 결과 달라지는 것은  
성적만이 아니다.

학생은  
단지 더 많이 배우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덜 무너진 채,  
덜 소모된 채,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지닌 채  
자리에서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 레이어의 생 신호를 직접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숫자와 지표보다  
결과를 먼저 체감한다.

차는 이제  
사람을 점과 선, 속도와 거리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는다.  
가정용 로봇은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간이 좋은 상태라고 선불리 착각하지 않는다.  
회의 소프트웨어는  
팀 분위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보 밀도부터 낮춘다.  
AI 업무 비서는  
사용자의 과잉 의존이 높아지면  
생산성 모드에서 설명 모드로 조용히 방향을 튼다.  
플랫폼도 예전처럼  
계속 자극하고 계속 붙잡기보다,  
때로는 잠깐 멈추게 하는 쪽을 택하기 시작한다.

Human Field Layer,  
인간 의식 상태 측정 레이어가 하는 일은  
세상을 단지 더 친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조금 덜 눈멀게 만드는 것이다.

그 변화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사고율은 떨어진다.  
학교 수업 뒤 피로는 낮아진다.  
돌봄 과정에서 벌어지던 급격한 사고와 상처는 줄어든다.  
직장 안의 갈등도 조금씩 누그러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놀라는 것은  
그 다음이다.

플랫폼 체류 시간은 약간 줄어든다.  
예전처럼 사람을 오래 붙들어 두지는 못한다.  
그런데 신뢰는 오히려 크게 오른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놀라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예전 모델은

사람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오래 붙잡아  
그 시스템 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오래 머물게 만들면 이기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덜 중독시키더라도  
더 오래 믿게 만드는 시스템이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덜 소모시키는데

더 오래 선택받는 시스템.

덜 자극하는데

더 깊은 신뢰를 얻는 시스템.

사람을 붙잡는 대신

사람을 덜 무너지게 하는 시스템.

시장도 처음엔 그 변화를

선의나 윤리의 언어로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훨씬 더 냉정한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

그들은 그것을

계몽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신호라고 부른다.**

# 2030 년

## 첫 번째 경제 반전

인간 의식 상태 측정 레이어가  
도시와 학교와 병원, 기업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경제는 가장 먼저 그 아래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혁명처럼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간판은 그대로 붙어 있고,  
은행도 열려 있고,  
건물도 여전히 서 있고,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여전히 출근한다.

하지만 흐름은 달라진다.

강바닥이 한순간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수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겉으로는 어제와 같은 도시인데,  
안쪽의 가치 판단이 먼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전 경제는  
희소하고, 소유할 수 있고, 쌓아둘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것에 보상을 줬다.  
토지, 임대료, 입지, 학벌 병목, 주목도, 배타적 접근권.  
누가 더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했는가,  
누가 더 오래 잠가 둘 수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자기 구조 안에 붙잡아 둘 수 있는가가  
곧 힘이었다.

좋은 건물이라는 말도 대체로 같은 뜻이었다.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고,  
오래 머물게 하고,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건물.

좋은 플랫폼도 비슷했다.  
사람의 시선을 오래 붙잡고,  
더 자주 반응하게 하고,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들수록 강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인간 의식 상태 측정 레이어가  
하나의 인프라로 깔리기 시작하자  
경제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무엇이 **OE**, 곧 정렬된 에너지를 높이는가.  
무엇이 **EE**, 곧 혼돈과 과부하의 에너지를 낮추는가.  
무엇이 강요 없이 **RE**, 곧 관계의 공명을 살려내는가.  
무엇이 지역 단위의 **CRI**와 **CFI**,  
즉 신뢰와 집단적 안정의 흐름을  
더 좋은 상태로 남기는가.

그 순간부터  
같은 건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고급스럽고 임대도 꽤 찾지만  
하루 종일 사람을 긴장과 과부하 속에 묶어 두는 오피스.  
아이를 더 잘 키운다는 이름으로  
가족 전체를 비교와 압박 속에 몰아넣는 학군 중심 주거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지만  
나갈 때는 더 예민하고 더 흩어진 상태로 돌려보내는 상권.  
오래 머물게 만들지만  
머문 뒤의 집중력과 관계를 마모시키는 플랫폼형 공간.

이런 자산은  
여전히 돈을 벌 수는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좋은 자산”이라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자산이 남기는 것이  
월세와 체류 시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의 OE 가 떨어지고,  
가족의 EE 가 올라가고,  
팀의 RE 가 닳고,  
동네 전체의 CFI 가 나빠지면  
그 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수익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의식을 흐트러뜨리고  
관계의 공기를 거칠게 만드는 장치로 읽히기 시작한다.

몇몇 한국 지역에서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선명하다.

이제 공간은  
좋은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그 공간이 사람의 의식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  
그 안에서 OE 가 살아나는지,  
RE 가 회복되는지,  
사람들이 더 사람답게 일하고 쉬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받기 시작한다.

강남의 마흔여덟 살 자산운용사 조민호는  
처음 보는 직업명을 가진 사람과 마주 앉는다.

### **Coherence Yield Architect.**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는 더 쉬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의식 정렬 수익 설계사.

혹은

공명 가치 설계사.

서예진

조민호는 다섯 채 건물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 놓고 묻는다.

“입지도 좋고, 임대도 짝 찼고,  
공실도 거의 없는데  
왜 갑자기 이게 약한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까?”

설계사 서예진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조용히 말한다.

“겉으로는 강한 자산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 사람들을 하루 아홉 시간  
과부하와 긴장 속에 묶어 둡니다.  
동선은 빠르지만 숨 돌릴 틈이 없고,  
채광은 좋지만 회복 공간이 없고,  
소음은 낮지만 관계는 끊겨 있습니다.

이 상권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지만  
나갈 때는 더 흩어지고 더 예민한 상태로 돌려보냅니다.  
많이 머물게는 만들지만  
좋은 상태로 머물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주거 자산은 겉으로는 고급스럽지만  
회복력은 낮고,  
세대 간 안정성도 낮고,  
좋은 이웃 관계가 생길 가능성도 약합니다.”

조민호는 한참 듣다가 짧게 묻는다.

“그래서요?”

서예진은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말한다.

“이제 중요한 건  
건물이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OE**를 정렬시키고 **RE**를 살려내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을 하루 종일 지치게 만드는 공간은  
당장은 임대료를 벌여줄 수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신뢰와 회복력,  
시민 가치와 장기 수익을 함께 잃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의 의식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맑게 하고 더 잘 연결되게 만드는 공간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한 자산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진 건  
건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더 높게 평가하는 건  
**사람을 살 만하게 만드는 장입니다.”**

그는 오래 말이 없다.  
그리고 결국 처음으로  
예전과 전혀 다른 질문을 꺼낸다.

“그럼 뭘 바꿔야 합니까?”

바로 그 질문이  
경제 반전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동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도 계속 사고,  
공간도 계속 개발한다.

하지만 처음으로  
**소유보다 생성이 중요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생성은  
막연한 분위기 만들기가 아니다.

그 공간이 어떤 상태를 만들어 내는가,  
어떤 관계를 낳는가,  
어떤 집중과 회복과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가,  
어떤 신뢰와 협업을 자라게 하는가를 뜻한다.

쉽게 말해  
그 공간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또렷하고 덜 무너지게 만드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뒤따른다.

이제 공간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건물주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만이 아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어떤 가치를 생성하는가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사람을 더 소모시키는 사업을 하는 세입자가 오래 들어오면  
그 건물은 외형이 멀쩡해도  
의식장과 관계의 공기가 빠르게 나빠진다.  
반대로 사람의 OE 를 높이고,  
RE 를 살리고,  
창작과 협업과 회복을 낳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장이 된다.

그래서 자산 전략도 달라진다.

더 많은 칸막이를 넣는 대신  
회복 공간을 넣고,

사람을 오래 붙잡는 장치 대신  
숨을 고를 수 있는 여백을 만들고,  
고립된 고급화 대신  
세대가 섞일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늘린다.  
공유 부역을 넣고,  
소음을 줄이고,  
작은 정원과 창작 공간,  
커뮤니티 회복 허브를 설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설계사는  
마지막으로 더 현실적인 말을 덧붙인다.

“이제는 좋은 가치를 생성하는 세입자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할 만큼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공간이 왜 좋은 의식장을 생성하지 좋은지,  
어떻게 사람의 상태를 덜 무너지게 하는 공간인지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저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사이트와 네트워크에  
이 공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전엔 좋은 위치가 세입자를 불렀다면,  
이제는 좋은 상태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  
좋은 세입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 말은  
투자 제안처럼 들리면서도  
거의 시대 진단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식이 가장 중요한 희소 자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이미 극대화해 버린 시대에는  
단순한 생산량, 단순한 반복 효율, 단순한 속도만으로는  
더 큰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  
누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보다  
누가 더 덜 무너진 채, 더 정렬된 채, 더 창조적으로 남을 수 있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미 몇몇 투자자와 도시 설계자들은  
이 전환의 근거를 정리한 새로운 경제 백서를  
예전 비트코인 백서를 읽듯 읽기 시작한다.  
가치의 기초가 물질 희소성에서  
의식의 정렬과 관계의 공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몽상이 아니라  
실제 자산 배분의 힌트로 읽히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심리적 중심성은 분명 약해진다.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물었다.

나는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좋은 위치를 선점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구조 안에 붙잡아 둘 수 있는가.

이제는 다른 질문이 앞에 나온다.

**나는 이 공간을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더 큰 변화가 그 뒤를 따른다.

예전 모델은

사람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오래 붙잡아 두는 데 성공하면  
그 자체로 돈이 되었다.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하고,

오래 반응하게 하고,

오래 떠나지 못하게 만들수록 강했다.

하지만 인간 의식 상태 측정 레이어가 들어온 뒤

한 가지가 너무 선명해진다.

그 과정에서

인지 환경을 마모시키는 비용이

너무 오랫동안 사회 바깥으로 떠넘겨져 왔다는 사실이다.

과잉 자극으로 인한 피로,

관계의 마모,

집중력의 파편화,

학교와 병원과 가정에서 새어나가는 갈등 비용,

신뢰가 닳아 없어지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예전 경제는

그 비용을 장부 바깥에 숨긴 채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용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의식의 정렬과 관계의 좋은 흐름은

좋은 말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경제 변수가 된다.

무엇이 사람을 더 정렬시키는가.  
무엇이 사람을 덜 무너지게 하는가.  
무엇이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이는가.

그 질문에 더 나은 답을 주는 공간과 서비스와 시스템이  
이제는 더 비싸지고, 더 오래 남고, 더 강한 것으로 평가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장은  
그 변화를 결국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사람을 소모시키는 구조는  
생각보다 빨리 낡아지고,  
사람을 살게 하는 구조는  
생각보다 오래 강해진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기 시작한다.

---

## 2031 년

### 집과 돌봄과 사랑의 모양이 달라지다

더 깊은 변화는  
경제가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라고 밀어 넣었던 곳에서 온다.

집이 먼저 바뀐다.

예전 문명에서 돌봄은  
늘 손해처럼 계산되었다.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건강이 닳고,  
기회가 늦어지는 일처럼 여겨졌다.

보이지 않는 노동이거나,  
아름답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불리한 희생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돌보면서도  
마음속 장부를 지울 수 없었다.  
이번 주말도 사라졌고,  
이번 달 저축도 줄었고,  
내 커리어도 조금 더 늦어졌다고 느꼈다.  
사랑은 있었지만,  
구조는 늘 돌봄을 손실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 오래된 계산법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인간 의식 상태 측정 레이어가 깔리고  
지역 단위의 CRI와 CFI가  
도시 운영과 가치 배분의 일부가 되자,  
돌봄은 더 이상 "좋은 마음"으로만 남지 않는다.  
누군가를 안정시키고,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붙들고,  
한 가족의 EE를 낮추고,  
한 공동체의 RE를 높이는 행위가  
실제 기여로 읽히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돌봄이 조용히 사람을 닳게 만드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돌봄이  
공동체 전체의 인간 상태를 붙들어 주는 힘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누가 노부모의 불안을 오래 받아내는지,  
누가 아이의 혼란을 가라앉히는지,  
누가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중간에서 버텨 주는지,

누가 한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게 옆에 남아 있는지.  
그런 시간이 이제는  
그냥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RE 와 CRI 를 높여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하는 시간으로 읽힌다.

그래서 어떤 지역들은  
돌봄 기여를 실제 가치 흐름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는 시간,  
노인을 돌보는 시간,  
관계를 수선하고 유지하는 시간,  
돌봄을 위해 생긴 경력 공백과 일시적 후퇴를  
더 이상 개인의 손실로만 남겨 두지 않는다.

서울 성수동 시험도시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대놓고 밀어붙인 곳 중 하나가 된다.

그곳에서는 돌봄과 육아, 케어가  
그냥 미덕이 아니라  
지역의 RE 와 CRI 를 살리는 기여로 구조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다.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집,  
노인을 외롭지 않게 붙들어 주는 집,  
갈등을 키우지 않고 관계를 이어 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도시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행정과 경제가 처음으로 같은 언어로 읽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흐름이 생긴다.

돌봄과 육아를 많이 맡아 온 사람들,  
경력보다 가족을 먼저 붙들었던 사람들,  
아이와 부모 사이에서 늘 완충재처럼 살아온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이 제도가 먼저 인정되기 시작한 성수동 시험도시로  
조금씩 이주해 오기 시작한다.

그곳에서는

돌봄이 더 이상 경력의 구멍으로만 읽히지 않고,  
육아가 더 이상 생산성의 중단으로만 취급되지 않고,  
가정을 붙들어 온 시간이  
그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마다 늙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딸의 시간도  
이제는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다.

어머니가 사는 공간이  
높은 OE와 RE를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그 딸이 해 온 돌봄이  
가족 내부의 고생으로만 남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신뢰를 떠받치는 기여로 읽히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은 손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가치가 된다.

그래서 대화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노부모가 자식에게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고,  
돈이 들어서 미안하고,  
짐이 되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미안함이 조금씩 줄어든다.

어머니는 더 이상  
오래 살아 미안하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다.  
딸도 더 이상  
돌보는 시간을 마음속 장부에만 적지 않는다.  
그 시간이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한 가족의 의식을 덜 흔들리게 하고,  
한 지역의 공기를 덜 거칠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사회도 조금씩 알아보기 때문이다.

상속도 약해진다.

예전에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움켜쥐고,  
집을 붙잡고,  
가족끼리도 결국 갈라져 싸워야 한다는 공포가 있었다.  
돈과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안전 장치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만이 삶을 지켜 주는 유일한 방패는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사람을 실제로 덜 무너지게 하는 것은  
통장에 묶인 숫자만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공간,  
돌봄이 별이 아니라 가치로 인정되는 구조,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지역이라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덜 두려워한다.

출산도 달라진다.

보고타의 젊은 부부 루시아와 마테오는  
잠든 첫째 딸을 바라보다가  
오래 말을 잇지 못한다.  
둘째를 갖고 싶다는 마음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예전의 삶에서는 그 마음이 늘 계산에 밀렸다.  
한 아이도 벅거운데 둘째는 무리라는 생각,  
돌봄과 육아가 결국 한 사람의 경력과 몸과 관계를  
너무 많이 갉아먹을 거라는 두려움이  
늘 먼저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들은  
서울 성수동 시험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곳은 단지 집값이 오르는 동네가 아니었다.  
돌봄과 출산, 육아가  
개인의 사적인 희생으로만 남지 않고,  
공동체의 RE와 CRI를 높이는 기여로  
구조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곳이었다.  
아이를 낳는 일이 미래 붕괴 비용을 혼자 떠안는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생을 공동체 안에 안전하게 들여오는 일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한 곳이었다.

루시아와 마테오는 결국 옮긴다.

작은 집을 정리해  
성수동 시험도시의 한 공동주거 단지로 들어온 첫날,  
그들은 가장 먼저  
조용한 공기의 차이를 느낀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는 동네.  
유모차가 공간을 방해하는 물건처럼 느껴지지 않는 골목.

돌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설명 없이 뒤쳐진 사람으로 읽히지 않는 분위기.

몇 달 뒤,  
루시아는 둘째를 임신한다.

그녀는 밤에 창가에 서서  
낮선 안도감을 느낀다.  
불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몸은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추락이나 소진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믿어 보게 된다.

어느 밤, 마테오가 낮게 말한다.

“5년 전 같았으면  
우린 이 결정을 못 했어.”

루시아도 웃으며 대답한다.

“응.  
그땐 둘째를 낳는다는 게  
우리 삶을 더 망가뜨리는 선택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들은 부자가 아니다.  
대단한 자산가도 아니다.  
다만 자신들이 사는 건물과 동네와 병원과 학교가  
돌봄과 관계 안정성을  
실제 가치로 인정하는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둘째를 갖는 일이  
미래 붕괴 비용을 떠안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다.

여성들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된다.

예전 구조에서는  
생존 계산이 사랑에도 들어왔고,  
외모에도 들어왔고,  
결혼과 출산과 나이에다 파고들어  
거의 모든 선택을 흔들었다.

젊음은 하나의 통화처럼 기능했고,  
결혼은 사랑인 동시에  
보호와 생존의 장치처럼 여겨졌고,  
누구를 사랑할지조차  
때로는 안정과 하락 방어의 언어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생존 압박이 구조적으로 줄어들자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달라진다.

사랑은 조금씩  
소유에서 공명으로 움직인다.

여성은 남성을  
존재를 보장해 주는 외부 뒤통스로만 보지 않게 되고,  
존재 자체,  
지성,  
정서적 안정,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어울리게 만드는지를  
더 직접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남성도 달라진다.

그들의 가치 역시  
돈을 얼마나 버는가 하나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자신이 주변의 인간 의식장과 관계를  
더 안정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망가뜨리는 사람인지가  
점점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누군가는 방에 들어오면  
공기가 거칠어지고,  
누군가는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덜 불안해진다.  
누군가는 말 한마디로  
가족의 EE 를 끌어올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RE 를 회복시킨다.

이 차이가  
이제는 단지 성격 차이나 매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실질적인 가치로 읽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사랑이  
오래된 공포의 계산법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랑이  
소유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

**2032 년**

## 학교가 사람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다

이 무렵이 되면

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시범사업 안에 숨어 있지 않다.

보통 부모들도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학교가 아이를 보는 방식이다.

예전 학교는

아이를 정보 저장 용기처럼 다뤘다.

얼마나 빨리 외우는지,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아 남보다 앞에 서는지를 중심에 두었다.

교실은 배움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불안과 비교와 서열을 조용히 주입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그런데 AI가

요약도 더 빨리 하고,

기억도 더 많이 하고,

답안의 모양까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는 시대가 오자

학교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인정하게 된다.

**지식을 외울 필요가 점점 사라지는 세상에서**

**교육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저장했는가만으로는

인간의 교육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문이 바뀐다.

이 아이는 지금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면서 버티고 있는가.

OE 는 올라가고 있는가.

EE 는 조절되고 있는가.

RE 는 살아나고 있는가.

주의력은 버티고 있는가.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관계를 망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가.

AI 와 협력하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지 않는가.

넘쳐나는 지식을

정렬된 의식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제 교육의 목적은

학생을 시험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AI 가 수집한 방대한 지식을

흩어지지 않은 의식으로 다루고,

좋은 질문으로 정렬하고,

의미와 창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 내는 쪽으로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한다.

대구의 한 교사 자격 센터.

스물아홉 살 지원자 김소라는

새로운 임용 시험을 치른다.

역사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명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는지는 여전히 본다.

하지만 이제 승부를 가르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교사 자격의 기준 안으로도

조금씩 새로운 항목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교사는 자기 OE 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가.  
학생 앞에서 EE 를 얼마나 다룰 수 있는가.  
교실의 RE 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는가.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보다 먼저  
한 공간의 인간 상태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 수 있는가.

그녀는 일부러  
불안정한 청소년 열두 명이 있는 시뮬레이션 교실 안으로 들어간다.  
둘은 흥분해 있고,  
하나는 움츠러들어 있고,  
하나는 과하게 지배적이며,  
또 다른 하나는 수치심 속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그 방 안은 이미 교실이 아니라  
작은 붕괴 직전의 사회처럼 흔들리고 있다.

평가자가 묻는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김소라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가장 EE 가 높은 학생들부터 봤습니다.  
누가 지금 가장 불안정한지,  
왜 그 방 안의 공기가 거칠어졌는지,  
무엇이 예민함과 혼란을 키우고 있는지부터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야 그 방의 OE 를 다시 세우고,  
아이들 사이의 RE 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 한 문장이  
예전 교육 체제와 새 교육 체제를 가르는 선이 된다.

예전 교육은  
질서를 먼저 세우고,  
아이를 맞추고,  
그다음 지식을 밀어 넣으려 했다.

새 교육은 안다.  
EE가 이미 치솟은 아이에게  
지식을 더 넣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손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먼저  
가장 흔들리는 아이를 찾고,  
그 원인을 읽고,  
무너질 아이를 붙잡고,  
서로를 덜 공격하게 만들고,  
그다음에야 비로소  
배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

교사는 이제  
정답을 빨리 설명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교실의 OE를 세우고,  
EE를 낮추고,  
RE를 회복시키며,  
그 위에서 지식과 창조가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아침 질문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출석을 부르고,  
숙제를 확인하고,  
준비물을 검사했다.

이제 교사는 먼저 묻는다.

“오늘 너의 OE 는 어때?  
좀 정렬된 느낌이니,  
아니면 많이 흐트러져 있니?”

아이들은 자기 의식 지표를  
매일 짧게 확인한다.  
OE 가 내려갔는지,  
EE 가 올라왔는지,  
RE 가 어제보다 약해졌는지를  
하루의 시작에서 먼저 본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곧 알아차린다.  
게임을 너무 오래 한 다음 날  
왜 집중이 흐트러지는지,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한 아이의 EE 가  
왜 수업 전에 이미 치솟아 있는지,  
말없이 무기력해 보이던 친구가  
사실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아이들은 또 보게 된다.  
따돌림을 당한 아이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돌림을 하던 아이들의 상태 자체도  
이미 높은 EE 로 올라가 있었다는 것을.

늘 남을 건드리고,  
조롱하고,  
작은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무리를 지배하려 들던 아이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실은 안쪽이 더 거칠고 더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들의 공격성은 힘이 아니라  
조절되지 않은 EE의 다른 얼굴에 가까웠다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교실 안의 이해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 따돌림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높은 EE와  
낮은 RE의 패턴은  
생활기록과 성장 리포트 안에 명확히 남는다.  
그것은 더 이상  
“애들끼리 그럴 수 있는 일”이나  
“지나가는 사춘기 문제”로 덮이지 않는다.

부모들은 처음으로  
자기 아이가 단지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만이 아니라,  
타인의 OE를 무너뜨리고 RE를 파괴하는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도 조금씩 바뀐다.

어떤 자격과 어떤 역할은  
단지 지식과 점수만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높은 EE를 방치하고,  
관계를 훼손하고,  
타인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패턴을 가진 사람에게는  
점차 더 좁은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누군가를 해치며 올라가는 방식은  
이제 단지 윤리적으로만 나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격과 신뢰를 잃게 만드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따돌림은  
도덕 교과서로 제재하지 않아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체벌이 강해져서가 아니다.  
훈화가 늘어서도 아니다.  
측정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괴롭혀도 성적만 높으면  
어른들은 종종 그것을 덮거나 미뤘다.  
공격성은 경쟁력으로 오해되었고,  
잔인함은 리더십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높은 EE 와 낮은 RE 가  
성장 곡선과 자격 곡선 전체를 잡아먹는다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니 따돌림은  
숨길수록 손해가 되고,  
방치할수록 미래를 잃는 행동이 되어 간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아이들은 남을 짓밟는 것이  
자기 우월감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자기 EE 를 기록으로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패턴을 가진 상태로 커 가는 것 자체를 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교사들은  
문제가 터진 뒤에 사건 처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EE 가 대립으로 굳기 전에 먼저 개입하는 사람이 된다.

그 무렵,  
어른들도 조금씩 더 깊은 것을 깨닫는다.

예전 학교의 따돌림 문화는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EE가 대립하고 증폭되던  
문명 전체의 축소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따돌림하는 아이들을 비난했고,  
그들을 영화와 드라마 속 괴물처럼 소비했지만,  
결국 그 장면 안에는  
우리 자신의 사회가 비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비교로 굴러가던 사회,  
약한 사람을 밀어내며 질서를 만들던 문화,  
타인의 무너짐 위에 자기 안정감을 세우던 경쟁,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안쪽 EE는 계속 높아지던 문명.

교실은 아이들의 세계였던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가 더 작고 더 날카롭게 압축된 거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아이들 개인의 악함만으로 설명하지 않게 된다.

문제는  
한 아이의 성격만이 아니라,  
EE를 높이고 RE를 깎아 먹는 구조를  
너무 오래 문명 전체가 정상처럼 살아왔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

게임 중독이 병명으로 굳기 전에 먼저 보이고,  
따돌림이 집단화되기 전에 미리 드러나고,  
숨은 우울과 무기력, 과몰입과 정서 폭발도  
병원에 실려 가기 전에 조기에 발견된다.  
학교가 처음으로  
성적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붕괴를 미리 보고 줄이는 곳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숙제도 달라진다.  
예전처럼 정답을 더 빨리 뽑아내는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을 오래 붙들기,  
친구와 부딪히지 않고 의견 말하기,  
AI가 준 요약을 다시 자기 언어로 바꾸기,  
불안이 올라올 때 멈추고 정리하기,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생각을 밀어붙이기 같은 과제가  
조금씩 중심으로 올라온다.

주간 리포트도 완전히 달라진다.

거기에는 더 이상  
기억력과 속도만 적혀 있지 않다.  
주의 안정성,  
회복 능력,  
관계 회복 능력,  
창조적 용기,  
성찰의 깊이,  
EE 상승 위험,  
교실 안 CRI,  
즉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공명 상태가 함께 기록된다.

점수표가 아니라  
한 아이가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는 지도에 가까워진다.

이 변화는  
학생만 바꾸지 않는다.  
교사 채용도 바꾸고,  
교실의 공기도 바꾸고,  
학부모의 시선까지 바꾸기 시작한다.

어느 저녁,  
한 아버지가 딸의 생활기록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는  
가족의 EE가 높으면  
아이 성적이 바로 떨어지는 세상이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다.

예전에는  
집 안의 불화나 부모의 긴장,  
잠 못 드는 밤과 거친 말들이  
학교 성적과는 별개인 것처럼 취급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

가족 전체의 EE가 높아지면  
아이의 OE가 먼저 흔들리고,  
RE가 닳고,  
주의력이 끊기고,  
결국 학습 곡선도 바로 내려간다는 것이  
기록과 패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성적표는 더 이상  
아이 혼자만의 결과표가 아니다.  
한 집의 공기와  
한 가족의 관계와  
한 아이의 내면 상태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가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한참 뒤에야 다시 말한다.

“이 성적표는  
애보다 나를 더 교육시키네.”

그 말은 거의 정확하다.

새 교육은  
아이만 바꾸지 않는다.  
부모도 함께 바꾼다.  
집에서도 성적 압박 대신  
가족의 RE 를 보게 하고,  
비교 대신 회복을 묻게 하고,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한 아이의 의식을 함께 지키는 구조로  
조금씩 이어 붙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한다.

예전 교육은  
부족한 세상에서 기억을 훈련했다.

새 교육은  
넘치는 세상에서  
정렬, 회복, 공명, 창조를 훈련한다.

무엇을 더 많이 저장하는가보다,  
무엇 앞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가를 묻고,  
얼마나 빨리 답하는가보다,  
얼마나 덜 무너진 채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학교는 다시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 되기 시작한다.

---

## 2032 년

### 창작자의 전환

서울, 2030 년 초겨울 밤 11 시 42 분.  
합정의 작은 편집실 안은 어두웠고,  
모니터 세 대만 푸른빛을 번쩍이고 있었다.

도윤은 마지막 클립을 자르고 있었다.  
분노를 가장 빨리 올리는 문장,  
댓글창을 가장 빨리 불태우는 표정,  
사람이 끝까지 보게 만드는 8 초짜리 멈춤.  
그는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지난 6 년 동안  
그와 그의 팀은 그런 방식으로 먹고살았다.  
짧고, 세고, 뜨겁고, 불편하고,  
사람을 조금 더 흥분시키는 콘텐츠.  
정답은 언제나 같았다.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두면 이긴다.

그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자동 보상 예측 창이 뜨기를 기다렸다.

예전 같으면  
여기서 숫자가 튀어 올랐다.  
예상 체류 시간,  
반응 증폭률,  
재방문 유도 지수,  
광고 전환 기대치.

그런데 이번엔 다른 창이 먼저 떴다.

**반복 노출 뒤 OE 저하율: 높음**  
**EE 잔존 시간: 과도**  
**지역 CRI 마모 영향: 음수**  
**공동체 피로 잔상: 지속형**  
**공명 기여 보상 등급: 낮음**

도윤은 한참 말이 없었다.

“뭐야, 또.”

옆에서 야근하던 동료 수민이  
의자를 끌고 와 화면을 본다.

“보상 또 깎였어?”

도윤은 헛웃음을 흘린다.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수민이 대시보드를 천천히 내린다.  
예전에는 없던 항목들이  
이제는 맨 위에 올라와 있었다.

이 콘텐츠가 사람을 더 오래 붙잡는가.  
그게 아니라,  
이 콘텐츠를 보고 난 뒤  
사람이 더 흠여지는가.  
더 예민해지는가.  
더 피곤해지는가.  
관계가 더 거칠어지는가.  
다음 날 아침까지 EE 가 남는가.

수민이 낮게 말한다.

“이제는 오래 보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돼.”

도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묻는다.

“그럼 뭘 원한다는 건데?  
재미도 있고 자극도 있고 조회수도 나오는데.”

수민은 화면을 가리킨다.

“돈이 안돼. 남는 게 없잖아.  
아니, 남는 건 있는데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

그 말 뒤로  
편집실 안이 잠깐 조용해진다.

지난 20 년 동안  
디지털 문화의 엔진은 거의 한 가지 방식으로만 돈을 벌었다.  
사람을 더 자극하고,  
더 흥분시키고,  
더 오래 붙잡고,  
더 자주 돌아오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플랫폼은

무엇이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하는지는 정교하게 계산했지만,

그 뒤에 무엇이 남는지는 거의 묻지 않았다.

그 콘텐츠가 사람을 더 분열시키는지,

더 예민하게 만드는지,

잠깐의 흥분 뒤에 더 낮은 회복력과 더 거친 관계만 남기는지에 대해서는

알고도 장부 바깥으로 밀어 두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예술과 콘텐츠가 남기는 것은

조회수가 아니라 **상태**로 읽히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바로 돈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도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얼굴이다.

“결국 재밌으면 보는 거잖아.”

수민은 이번엔 웃지 않는다.

“아니.

이제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걸 계속 보는 게

사람들한테도 손해야. 나 같아도 안 볼 거 같아. 보상이 없잖아.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더 낫겠다.”

그 한 문장이

예전과 지금을 갈라놓는다.

예전엔

사람을 더 화나게 하고,

더 질투하게 하고,

더 중독되게 만들수록

강한 콘텐츠처럼 보였다.

지금은 다르다.

사람의 상태를 소모시켜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이미 높은 EE를 생산하는 구조로 읽힌다.  
그러니 경제 보상도 약해진다.  
많이 보게 만들 수는 있어도,  
보고 난 뒤 남는 것이 과부하와 예민함과 피로라면 그 콘텐츠는 점점 약한 자산이 된다.  
이제 많은 플랫폼은 콘텐츠가 생산하는 OE, RE, CRI, CFI 기여를 실제 보상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한 시간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어떤 상태로 남겼는지가 더 큰 돈이 되기 시작했다.  
AI가 콘텐츠 생산량을 이미 폭발시켜 버린 시대에 마지막으로 희소하게 남는 자본은 바로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

금지하지 않아도 EE를 높이는 콘텐츠를 일부러 적게 보게 된다. 도덕적으로 착해져서가 아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하루의 OE를 흐리고, RE를 깨뜨리고, 의식 경제 안에서 자기 수지를 깎아먹는다는 걸 사람들이 점점 몸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콘텐츠가 여전히 잘 먹히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의식장 측정 변수가 아직 약하게 작동하는 지역, EE가 높은 채 그대로 수익이 되는 도시,

피로와 분노가 아직 상품으로 팔리는 국가.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안다.  
그런 곳이 앞으로의 중심이 아니라  
서서히 뒤쳐지는 시장이라는 것을.

사흘 뒤,  
도윤은 플랫폼 파트너십 담당자를 만난다.

여의도,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  
벽면 전체를 덮은 대시보드에는  
예전의 수익 그래프와 전혀 다른 지표들이 떠 있었다.

### **Post-Exposure Recovery Curve**

### **Collective OE Lift**

### **RE Retention**

### **Local CRI Recovery**

### **Field Integrity Contribution**

도윤은 화면을 한참 보다 묻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회수보다  
사람을 덜 망가뜨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담당자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답한다.

“조금 다릅니다.  
덜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엇을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올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고 난 뒤 사람이 더 정렬되는지,  
관계가 덜 거칠어지는지,  
공동체의 장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지를 봅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돈이 돼요?”

“이제는 그게 제일 비쌉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느낀다.

---

나이로비, 오후 5시 20분.  
역 광장에 겨울빛 같은 먼지가 얇게 떠 있다.  
사람들은 퇴근길처럼 서두르면서도  
이상하게 발걸음을 늦춘다.

광장 중앙의 작은 무대 위에서  
아미나 은조로게가 노래를 시작한다.  
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누군가를 과하게 흥분시키는 종류의 곡도 아니다.

예전 같으면  
알고리즘은 이런 음악을 밀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오래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도망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거칠어진 자기 안쪽을  
조금 덜 헝클어진 상태로 돌려놓고 싶어서 온다.

노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바로 흩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울지 않으려고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말을 나누고,  
누군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꺼내지 않는다.

광장 운영 화면에  
짧은 문장이 뜬다.

**지역 OE 상승**  
**세대 간 RE 회복 신호 감지**  
**공동체 CRI 안정화 기여: 유의미**

아미나는 그걸 보고도  
대단한 표정을 짓지 않는다.  
예전에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던 일을  
이제 도시가 처음으로 일이라고 불러 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완전히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은 더 이상  
한가할 때 보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EE 를 낮추고,  
세대 간 RE 를 살리고,  
공동체의 CRI 를 회복시키는  
공공 인프라로 다시 배치되기 시작한다.  
예술은 장식이 아니라  
의식 상태를 조절하고  
집단적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읽히기 시작했고,  
작품의 가치는 시장 취향보다  
그 작품이 남기는 공명과 회복의 깊이로 더 직접 연결되기 시작한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십대 소년이 인터뷰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

“예전엔 예술이  
돈벌이 끝난 뒤에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게  
진짜 일 같아요.”

그 문장은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이미 현실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이 경제적 보상을 받는 방식도 달라졌다.  
마음에 든다고 박수만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남긴 OE와 RE,  
그 공연이 높인 CRI와 CFI가  
실제 창작 보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예술가들은 더 이상  
예술을 하기 위해  
다른 생계 노동을 필수로 끼워 넣을 이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돌봄이 가치로 인정되듯,  
공명하고 의식을 깨우는 예술도  
이제는 구조적으로 보상받기 시작한다.  
기본 창작 소득과 공명 보상 구조는  
깊은 창작을 겸업의 틈새가 아니라  
중심 활동으로 바꾸는 경제적 조건이 된다.

---

서울 성수동, 비 오는 저녁 8시 11분.  
허름한 국수집 안에서  
두 친구가 국물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

“그 사업 접자.”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석은 젓가락질을 멈춘다.

둘이 하던 일은  
짧고 자극적인 분노 클립을 최적화해서  
조회수와 체류 시간을 뽑아내는 작은 에이전시였다.  
예전엔 그게 진짜 돈이었다.

“접고 뭘 하게?”

준호는 태블릿을 돌린다.  
새 사업 계획서다.

**지역 field lab.**  
**동네 의식장 연구소.**

스튜디오이자,  
청소년 워크숍이자,  
세대 간 회복 공간이자,  
동네 콘텐츠 하우스다.  
짧은 영상,  
음악,  
낭독회,  
움직임 수업,  
공공 의식,  
기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OE와 RE를 높이는 사업.

민석이 피식 웃는다.

“이게 돈이 된다고?”

준호가 젓가락으로 국수 한 가닥을 들어 올리며 말한다.

“이제는 되잖아.  
오래 붙잡는 것보다  
종게 남기는 게 더 비싸니까.”

국수집 창문에 빗물이 흐른다.  
밖으로는 예전보다 조용해진 거리와  
작은 공명 홀,  
야간 창작 교실,  
동네 미디어 랩 불빛이 겹쳐 보인다.

예전 같으면  
시장성이 낮아서 사라졌을 노래들,  
너무 조용해서 알고리즘이 밀어주지 않던 영상들,  
세대를 이어 주는 작은 공연들,  
깊지만 즉각 반응을 뽑지 못하는 글들,  
동네 공기를 바꾸는 움직임 수업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

장르가 살아나고,  
느린 예술이 돌아오고,  
작은 예술이 공공의 중심으로 올라온다.

왜냐하면 이제는  
얼마나 크게 터졌는가보다  
얼마나 깊게 남았는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학교도 이 흐름을 따라간다.

아이들은 예술을  
특별활동처럼 배우지 않는다.  
창조의 한 방식이자  
경제 활동의 한 방식으로 배운다.

음악과 글쓰기,  
움직임,  
영상,  
시각 언어는  
그저 감성을 기르는 수업이 아니라  
OE 를 다루고,  
EE 를 정돈하고,  
RE 를 생성하는 실제 기술로 가르쳐진다.

한 중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말한다.

“오늘 과제는  
AI 보다 더 예쁜 답을 만드는 게 아니야.  
이 주제로  
친구들 OE 를 올리고 RE 를 살릴 수 있는 형식을 찾는 거야.”

아이들은 웃으면서도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누군가는 짧은 음악을 만들고,  
누군가는 다큐를 찍고,  
누군가는 움직임 수업을 설계하고,  
누군가는 할머니 세대의 기억을 기록해  
동네 공명 아카이브에 올린다.

그리고 그것이  
봉사활동이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예전 유튜브 시대에  
크리에이터가 우후죽순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술가와 창작자가  
그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사람을 오래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덜 무너지게 하는 감각이  
보상받는다.

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직업이 되고,  
도시를 살리고,  
학교를 바꾸고,  
공동체를 붙든다.

그래서 인류는  
오히려 AI 시대에 들어서서  
**예술과 창작이 폭발하는 시대로 접어든다.**

AI 가 약해져서가 아니다.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다.

기계가  
요약하고,  
복제하고,  
편집하고,

형식을 무한히 만들어 내는 시대에는  
정작 희소해지는 것이 달라진다.

누가 더 많은 콘텐츠를 찍어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상태를 남기느냐.  
누가 더 깊은 회복을 주느냐.  
누가 더 혼란한 시대에  
조금 더 정렬된 공기를 만들 수 있느냐.

예술은 그래서  
장식이 아니게 된다.

창작 경제도  
더 이상 옵션이 아니다.

인프라가 된다.

도시를 회복시키는 인프라,  
세대를 잇는 인프라,  
학교와 병원과 광장의 EE를 낮추는 인프라,  
사람들이 덜 무너진 채  
내일로 건너가게 만드는 인프라가 된다.

그리고 창작자는  
그 인프라를 만드는 사람으로  
다시 읽히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창작자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세상을 덜 눈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창작자로 남기 시작한다.

---

2033 년

## 중심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너져 본 곳에서 열리다

메데인, 2033 년 8 월.

오후 5 시 12 분.

산비탈을 따라 이어진 집들 위로  
주황빛 케이블카가 천천히 지나간다.

라울 모레노는  
작은 공공 이동 허브 앞에 서서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본다.

예전 같으면  
그는 이 시간에 택시 배차 앱 세 개를 동시에 켜 놓고  
취소되는 호출과 막히는 길,  
짜증 섞인 메시지와 씨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돈은 늘 같은 방식으로 벌렸다.  
망가진 도시 안에서  
더 빠르고 더 거칠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돌아갔다.

지금 그의 화면에 뜨는 것은  
운행량만이 아니다.

노인 이동 안정도.  
청소년 회복 모임 참여율.  
블록 단위 갈등 완화 추세.  
지역 관계 회복도.  
이번 주 의식장지수 기여 예상치.

그는 화면을 한 번 더 본다.  
오늘 보상 예측은  
예전 택시 배차 시절보다 높다.

옆에 있던 대학생 코디네이터가 웃으며 묻는다.

“아저씨, 아직도 이게 신기해요?”

라울은 태블릿을 끄고 말한다.

“신기하지.  
예전 경제는 망가진 곳 안에서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 돈을 좇어.  
이제는 망가짐 자체를 줄이면  
돈을 주잖아.”

그 말은 짧지만  
한 시대의 끝을 정확히 찌른다.

---

한국 다음으로 빨리 움직인 곳은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북미와 서유럽의 오래된 금융·정책·담론 중심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의 일부 지역이었다.

많은 평론가가 놀란다.  
그들은 문명 전환이 늘  
자본과 제도, 학술 권위가 두꺼운 곳에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번진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오래된 물질 문명의 실패는  
이 지역들에서 이미 너무 오래,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통화 붕괴.  
부채 의존.  
플랫폼 착취.  
얕은 신뢰.  
허약한 공공의료.  
교육 피로.  
제도는 남아 있는데  
사람의 안쪽은 먼저 무너지는 경험.

옛 질서 아래서  
이것들은 약점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환기에는  
이것들이 오히려 감각 기관이 된다.

어디가 먼저 깨지는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도시가  
걸으면 멀쩡해도 안쪽에서 먼저 상해 가는지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측정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철학이나 유행어로 먼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바로 알아봤다.

아,  
이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느껴 왔는데  
이름이 없던 그것이구나.

왜 어떤 골목은  
범죄 통계보다 먼저 공기가 거칠어지는지.  
왜 어떤 학교는  
성적보다 먼저 아이들 표정이 무너지는지.  
왜 어떤 동네는  
지원금이 들어와도 계속 불안정한지.  
왜 어떤 지도자는  
그럴듯한 말을 쏟아내도  
사람들을 더 흠어지게만 만드는지.

이제 그 모든 것이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

아크라, 같은 해 10 월.  
오후 공기는 눅눅했고  
버스 창문 밖으로 먼지와 햇빛이 함께 흘렀다.

에시아 아줌마는  
장바구니를 품에 안고  
공공버스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이 도시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날카로운 경적.  
신경질적인 군중.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는 차.  
조금만 늦어도 서로를 밀치게 되는 오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에 돌아갈 때면  
하루가 사람 안쪽을 조금씩 긁어 놓고 간 듯한 피로.

그런데 요즘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예전처럼 어깨가 돌처럼 굳지 않는다.

안내 음성은 조금 낮아졌고,  
정류장 주변 광고 밀도는 줄었고,  
군중이 과열되기 쉬운 시간대에는  
현장 인력이 먼저 배치된다.  
차량 간격도  
사람들을 더 몰아붙이는 쪽이 아니라  
덜 예민해지게 하는 쪽으로 조정된다.

겉으로 보면 사소한 변화다.  
하지만 에시아는 안다.  
이런 사소한 조정들이  
사람을 하루 끝에  
덜 상처 입은 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린다.

“도시가 이제는  
나를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네.”

옆자리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예전엔 없던 감각이죠.”

바로 그 감각이 핵심이다.

좋은 도시는  
더 빠른 도시가 아니게 된다.  
사람을 덜 해치는 도시가 된다.

좋은 교통도  
더 많이 실어 나르는 교통이 아니게 된다.  
사람의 예민함을 덜 키우고,  
관계의 거칠음을 덜 퍼뜨리는 교통이 된다.

좋은 정책도  
서류상 성과를 예쁘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을 통과한 사람의 안쪽이  
덜 무너지는 정책이 된다.

---

이 지역들에서는  
의식장지수가 단지 진단표가 아니다.  
곧바로 부가가치가 된다.

누가 지역의 불안을 낮추는가.  
누가 갈등을 줄이는가.  
누가 노인과 아이, 이웃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키는가.  
누가 사람들을 덜 흩어지게 만드는가.

그 기여가 측정되고,  
그 기여가 보상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붕괴를 먼저 경험했던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된다.  
예전에는 취약함으로 보였던 자리가  
이제는 회복을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자리로 바뀐다.

이들은 더 빨리 안정을 찾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무엇이 안정인지  
처음으로 숫자와 체감이 동시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정치인이 마이크를 잡고  
나라가 좋아지고 있다고 외치면  
사람들은 불안해도 참고 들어야 했다.

지금은 다르다.

사람들은  
목소리보다 지표를 본다.  
선동보다 장의 상태를 본다.  
누가 분노를 키우는지,  
누가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누가 공동체의 OE 를 세우고  
EE 를 낮추는지  
숫자와 일상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선동이 정치인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말은 뜨거운데  
의식장지수는 계속 나빠지는 사람.  
구호는 화려한데  
지역의 관계 공기는 계속 거칠어지는 사람.  
적을 만들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만  
도시 전체의 EE 만 높이는 사람.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지금은

그저 비싼 혼란을 만드는 사람처럼 보인다.

---

마닐라 외곽의 한 공동체 회복 센터에서는  
천장 선풍기가 느리게 돌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사람들 사이로  
희미한 형광등 빛이 흐른다.

벽면 화면에는  
오늘의 지역 지표가 조용히 올라간다.

갈등 고위험 구역, 완화 중.  
청소년 회복 모임 참여율, 상승.  
가족 관계 회복도, 안정권 진입.  
이번 주 지역 의식장지수, 상승.

서른두 살 마리아는  
회의록 대신  
동네의 공기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은 봉사활동으로 불렸을 것이다.  
중요하지만 돈이 안 되는 일.  
늘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예산이 깎이던 일.

지금은 다르다.

마리아는  
갈등 조정,  
노인 방문 돌봄 연결,  
청소년 회복 모임 운영,

지역 창작 프로그램 기획으로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번다.

남동생이 묻는다.

“누나,  
이런 게 진짜 직업이 된다고?”

마리아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한다.

“이제는 이런 게 안 되면  
도시가 무너져.”

그 말엔 과장이 없다.

예전 경제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었다.  
사람을 갈라놓아도,  
피로를 키워도,  
신뢰를 깎아도,  
숫자만 잘 나오면  
성공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무엇이 실제로 도시를 살리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누가 지역의 OE 를 높이는가.  
누가 RE 를 붙들어 주는가.  
누가 갈등이 사건이 되기 전에  
공기를 먼저 바꾸는가.  
누가 공동체를 덜 무너지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기여가  
경제적 가치로 바로 연결된다.

---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는  
문명 전환이  
거대한 이론으로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생활비 고지서처럼,  
학교 분위기처럼,  
보건소 변화처럼,  
버스 안 공기처럼,  
아이들 표정처럼 들어온다.

공동체가 덜 무너지면  
돈이 돌고,  
돌봄이 인정되면  
가족이 버티고,  
관계가 회복되면  
도시가 조용해진다.

이렇게 동네 단위에서 먼저 쌓인 안정이  
나중에 더 큰 사회 전체의 정렬로 번져 간다.

세계가 한꺼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어떤 골목이 좋아지고,  
어떤 학교가 좋아지고,  
어떤 동네가 덜 상처 입는 법을 배우고,  
그 조용한 회복이  
나중에 더 큰 흐름이 된다.

---

몇 년 뒤,  
북미와 서유럽의 한 유력 칼럼니스트가  
이 흐름을 두고 한 줄로 적는다.

“흥미로운 사회 실험.”

라울 모레노는  
그 문장을 읽다가  
기사 창을 바로 닫아 버린다.

그는 웃지도 않는다.  
그냥 짧게 말한다.

“실험 아니야.”

그 말이면 충분하다.

버스를 타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노인을 돌보고,  
하루를 덜 상처 입은 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이건 실험이 아니다.

삶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험장이라는 말을 거부한다.  
시범도시라는 말도 거부한다.  
테스트베드라는 말도 싫어한다.

그건 아직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정확한 이름을 쓰기 시작한다.

**먼저 도착한 미래.**

---

## 정치가 뒤늦게, 사람의 상태를 따라오기 시작하다

서울, 2034년 2월.

새벽 공기는 아직 푸르게 차가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복도에는  
기자들과 보좌진, 카메라와 경호 인력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화면만 켜지면 군중을 달구는 사람으로 통했다.  
말은 날카로웠고,  
적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고,  
분노를 지지율로 바꾸는 데 누구보다 능했다.

예전 시대였다면  
그는 강한 정치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회의실 안쪽 전광판에는  
후보 등록 심사 결과가 떠 있었다.

**후보 기본 자격: 충족**  
**형사·재산·행정 심사: 통과**  
**공개 의식지표 심사: 보류**  
**최근 180일 EE 변동성: 기준 초과**

국민 집단 RE 훼손 위험: 높음  
공적 스트레스 상황 OE 유지율: 미달

남자의 얼굴이 굳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답한다.

“후보님은 법적으로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지표 공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본선 토론, 공공 매체 우선권, 정책 배당,  
그리고 최종 등록에 제한이 생깁니다.”

남자가 헛웃음을 흘린다.

“결국 정치 검열 아닙니까?”

회의실 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 심사위원이  
처음으로 고개를 든다.

“예전에는 말의 열기만 봤습니다.  
지금은 그 말 뒤에  
국민들이 어떤 상태로 남는지도 봅니다.  
후보님 발언 직후  
세 도시의 EE가 반복적으로 급등했고,  
지지층 바깥의 RE는 계속 무너졌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그걸 통치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복도 밖으로 나온 기자 하나가  
작게 중얼거린다.

“한때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한다.

“응.

트럼프 같은 이름이  
분노를 힘으로 바꾸던 시대가 있었지.  
그땐 다들  
뜨거우면 강한 줄 알았어.”

그 말 뒤로  
복도는 잠깐 조용해진다.

이제는 다르다.

정치는 더 이상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는가의 경쟁이 아니다.  
누가 더 오래  
국민들의 안쪽을 무너지지 않게 둘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된다.

---

예전의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민주,  
공산과 자본의 대립은  
대체로 물질 분배를 둘러싼 해석 차이였다.

누가 더 가져야 하는가.  
누가 더 나눠야 하는가.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시장이 어디까지 자유로워야 하는가.

그래서 싸움은 끝이 없었다.  
같은 불안 위에서  
서로 다른 해석만 계속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식장지수와 관계 공명 지수,  
즉 OE와 EE와 RE가 만들어 내는  
정렬과 붕괴의 흐름이  
정치의 공개 변수로 올라오자  
바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누가 더 그럴듯한 이념을 말하는가보다  
누가 사회 전체의 EE를 키우는가,  
누가 국민들의 RE를 깎아먹는가,  
누가 OE를 세우고  
공공의 판단력과 신뢰를 오래 유지시키는가가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오래 끌던 대립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않지만  
서서히 힘을 잃는다.

더 이상  
그 싸움이 핵심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변수로 정렬된 세상에서는  
기존의 싸움이 점점 의미를 잃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민주냐 보수냐,  
공산이냐 자본이냐가  
세상의 가장 큰 질문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먼저  
국민들의 의식장이 무너지는지 유지되는지가 보인다.

그 앞에서는  
오래된 깃발들의 권위가 조금씩 열린다.

---

마포의 한 카페.  
출근길 시민들이 커피를 들고  
창가에 길게 서 있었다.

서른다섯 살 여성이  
옆 사람에게 묻는다.

“이번 분기 의식정렬 투표가중치 갱신됐어요?”

상대가 웃으며 답한다.

“응. 0.4 까지 올라갔어.  
지난 2 년 동안 OE 안정성이 높고  
지역 RE 기여가 좋게 나왔대.”

“부럽네요. 전 아직 0.2 예요.  
작년에 번아웃이 너무 심했어서.”

그녀는 민망한 듯 웃었지만  
목소리엔 이상한 안도가 묻어 있었다.

예전에는  
정치가 늘 감정이 가장 거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누가 더 분노를 잘 조직하는가,  
누가 더 두려움을 잘 자극하는가가  
정치적 효율처럼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기본 한 표는 모두에게 같지만,  
오랜 기간 OE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EE 를 과도하게 퍼뜨리지 않으며,  
공공의 RE 를 해치지 않은 시민에게는  
**의식정렬 투표가중치**가 덧붙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제도를 곧바로 줄여 부르기 시작한다.

### **정렬가중치.**

빵집 앞에 서 있던  
예순둘의 남자가 낮게 말한다.

“이제는 마음대로 흥분해서  
나라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정치가 무섭지 않아서.”

옆의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이제는 OE 란 RE 높은 사람이  
결정권이 더 크니까.  
좀 안심돼요.”

그 말엔  
단순한 제도 만족이 아니라  
오래된 피로가 조금 걷힌 사람 특유의 진심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정치가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감각을 배워 간다.

---

그리고 한국은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제도화한 나라가 된다.

높은 OE와 RE,  
낮은 EE 변동성을 장기간 유지한 후보가  
결국 대통령에 선출된다.

그의 당선 연설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광화문 광장,  
밤하늘 아래 사람들은  
큰 구호를 기다렸지만  
그는 상대 진영을 향해  
칼 같은 말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을 더 흥분시키기 위해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서로를 덜 상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오래 유지되게 하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이제 국정의 기준은  
성장률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떤 상태로 남기는가입니다.”

그 순간  
광장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전에 먼저  
숨을 한 번 쉬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정치 연설을 듣고  
몸이 덜 피곤하다고 느꼈다.

누군가는  
상대를 미워하라는 신호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낮설게 울컥했다.

그렇게 한국은  
높은 EE를 정치 자산으로 삼는 시대를  
가장 먼저 넘기기 시작한다.

---

그리고 변화는  
가장 오래 굳어 있던 문제,  
남북 관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비무장지대 인근, 2034년 늦가을.  
새벽 4시 41분.  
접경 지역 공동상황실의 조명은 희고 차가웠다.

벽면 화면에는  
열 감지, 통신량, 차량 이동 경로와 함께  
다른 곡선이 떠 있었다.

**접경 지역 EE 상승 압력**  
**남북 경계권 RE 붕괴 신호**  
**군사 긴장 전조형 CRI 저하 패턴**  
**주민 정서 안정도 이탈 경보**

젊은 장교가  
화면을 올려다보며 말한다.

“또 이 패턴입니다.  
지난번 국지 충돌 직전이랑 거의 같습니다.”

옆에 있던 노장 장성이  
오래 화면을 보다가 답한다.

“예전엔 총성이 먼저 오고  
우리가 뒤늦게 해석했지.  
이제는  
무너지기 전에 의식장이 먼저 보이네.”

그 말이  
남북 문제를 다르게 열기 시작한다.

오래된 분단 논리는  
너무 오래 굳어 있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안보와 체제,  
선전과 불신.  
모든 것이  
상대를 부정하는 언어로만 축적되어 있었다.

하지만 접경 지역의  
의식장지수와 관계 공명 지수가  
장기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본다.

오래된 이념은  
여전히 국민들을 갈라놓는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상태를 안정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조는  
체제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군사 충돌 직전마다  
늘 먼저 보이는 것이 있었다.

지역 EE가 먼저 치솟고,  
주민들 사이의 RE가 먼저 마르고,  
작은 사건이  
과도한 적대 서사로 번지기 전에  
국민들의 의식장이 먼저 거칠어졌다.

예전엔  
이걸 선전, 도발, 우발 변수 같은 이름으로 따로 불렀다.

이제는 안다.

그건 먼저  
**의식장의 붕괴**였다.

그래서 개입도 달라진다.

확성기보다 먼저  
접경 주민 RE 회복 프로그램이 투입되고,  
군사 경계태세와 함께  
정서 과열 완화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학교와 병원, 방송과 교통망이  
같은 방향으로 EE를 눌러 주기 시작한다.

---

이 흐름 속에서  
북한도 버티기 어려운 벽에 부딪힌다.

평양 외곽의 한 회의실.  
회색 양복을 입은 간부 셋이  
낮은 목소리로 숫자를 읽고 있었다.

해킹 수익, 감소.  
암시장 약물 유통 수익, 급감.  
외화 결제망 접근성, 축소.  
지역 협력 거래 승인률, 하락.

한 간부가  
종이를 내려놓고 투명스럽게 말한다.

“왜 이렇게 갑자기 다 막히는 거요?”

젊은 경제관료가  
표정을 굳힌 채 답한다.

“이제는  
EE 를 높이는 방식으로 번 돈이  
밖에서 오래 통용되지 않습니다.  
의식지표 기반 거래망이 퍼지면서  
고위험 EE 경제는 계속 배제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불안과 위협, 해킹과 마약,  
혼란과 공포로 벌어들이는 방식으로  
경제주권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간부가 짜증스럽게 끼어든다.

“돈은 돈이오.”

젊은 관료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저쪽은 이미  
의식장이 안정될수록 돈이 도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린 아직  
혼란으로 법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주권을 거의 잃습니다.”

그 말은  
공포보다 더 차갑게 방 안에 내려앉는다.

북한은 너무 오래  
전체 국민을 높은 EE 상태로 눌러  
질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의식경제가 세계적으로 퍼지자  
그 방식은 점점 비싸고 불리한 통치가 된다.  
국민들을 겁주고 긴장을 유지하는 체제는  
이제 무역에서도, 결제에서도,  
협력에서도 손해가 커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

AI와 휴머노이드가  
삶의 거의 모든 층위에 들어온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장이 무너질 때  
그 붕괴가 그대로  
기계들의 EE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되비쳐 나온다.  
그것은 다시  
국민들 자신에게 거울처럼 돌아온다.

예민한 국민은  
더 예민한 기계를 만나고,

불안한 도시는  
더 날카로운 자동화 반응을 돌려받고,  
높은 TE 국가는  
자기 붕괴를 기술로 다시 증폭해서 맞는다.

그런 사회에서  
아무도 삶에 도움이 안 되는  
TE 높은 지역, 국가, 제도, 이념 아래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건  
불편한 선택이 아니라  
거의 자폭에 가까운 선택이 된다.

생계에도,  
안전에도,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분명하게 안다.

국민들의 의식장을 무너뜨리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강한 국가가 아니라,  
기술까지 동원해 자기 붕괴를 가속하는 국가라는 것을.

---

그때 한국의 새 지도자가  
뜻밖의 제안을 꺼낸다.

개성 인근 중립 회담 구역.  
비가 조금 지난 저녁,  
유리창 밖으로 젖은 공장이 보인다.

한국 측 대표가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한다.

“체제를 먼저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념부터 접자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 국민들의 EE를 낮춰 봅시다.  
접경 도시와 물류 구역,  
병원과 식량 배급,  
청소년과 노인 돌봄부터  
의식지표를 도입해 보시죠.”

북한 측 대표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걸 하면  
무슨 이익이 있소?”

한국 측 대표는  
예전 시대 정치인처럼  
화려한 수사를 꺼내지 않는다.

“국민들이 덜 무너집니다.  
갈등 비용이 줄어듭니다.  
식량과 물류, 치료와 교육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곧 경제입니다.”

짧은 침묵 뒤에  
북한 측 대표가  
처음으로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인다.

그 순간은  
완전한 통일의 순간이 아니었다.  
체제가 사라지는 장면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된 대립이  
다른 층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공산과 자본의 싸움은  
먹고사는 분배를 둘러싼 해석 차이였지만,  
의식장지수가 들어온 뒤부터는  
그 싸움만으로는  
국민들을 오래 살게도,  
도시를 오래 버티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선명해진다.

그리하여  
민주 대 보수,  
공산 대 자본의 대립은  
갑자기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힘을 잃는다.

더 이상  
그 싸움이  
삶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

워싱턴의 한 전략 회의실에서  
선거 설계 담당자가  
후보 영향 대시보드를 바라보며 말한다.

“예전엔  
트럼프식 과열 정치가  
강한 동원 전략처럼 보였죠.  
지금 저걸 다시 하자고 하면  
국가 EE 폭증 경보부터 뜁니다.”

모스크바에선  
강한 국가 서사가  
실제로는 사회 전체 RE 를 얼마나 마모시키는지  
계속 드러나기 시작한다.

베이징에선  
효율과 통제만으로  
장기 안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낮은 RE 위에 세운 질서가  
결국 비싼 불안정인지에 대한  
정책 점검이 시작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의 도시들마다  
처음엔 다 다른 언어를 쓰지만  
결국 같은 질문 앞에 멈춰 선다.

누가 더 옳은 이념인가가 아니라,  
누가 사회를 더 오래  
정렬된 상태로 남기는가.

누가 상대를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집단 EE 를 낮추고  
RE 를 회복시키느냐.

정치는 그렇게  
뒤늦게 국민들의 의식장을 따라오기 시작한다.

---

2035년 봄,  
유엔 회의장 대형 스크린 위에는  
처음으로 세계 의식장 안정 지도가 뜬다.

국가별 EE 급등 지역,  
CRI 회복 구역,  
CFI 안정도 변화가  
전쟁 위험도와 함께 표시된다.

한 외교관이  
너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의식장이 먼저 보이는군요.”

그 말은  
그 시기의 핵심을 정확히 찌른다.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을 흥분시키는 기술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오래 가는 권력은  
결국 국민들을 덜 무너뜨리는 권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치인을 볼 때  
먼저 묻는다.

저 사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저 사람이  
국방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도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

**저 사람은  
국민들을 어떤 상태로 남기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정치는 처음으로  
조금 덜 잔인해진다.

---

## 2036 년에서 2040 년

### **분열에 더 이상 상금을 주지 않는 문명**

마지막 전환은  
영화처럼 오지 않는다.

하늘을 갈라 놓는 선언도 없고,  
세계를 한순간에 화해시키는 연설도 없고,  
모든 갈등을 끝냈다고 서명하는 조약도 없다.

대신 더 조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문명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분열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하는 것.**

2030년대 후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무엇이 강한 사회인가를 다르게 말하기 시작한다.

가장 안정적인 사회는  
예전 의미의 부국이 아니다.  
가장 큰 군대를 가진 나라만도 아니고,  
가장 시끄럽게 자기 확신을 외치는 국가도 아니고,  
가장 많은 계산 자원과 데이터센터를 쌓아 올린 나라만도 아니다.

가장 안정적인 사회는  
사람들의 주의를 끝없이 잘게 찢지 않는 사회다.  
관계를 피로 속에서 소모품처럼 갈아 넣지 않는 사회다.  
정치가 분노를 권력으로 바꾸는 속도를  
더 이상 능력으로 칭찬하지 않는 사회다.  
경제가 부서진 집중력과 무너진 신뢰,  
마모된 마음과 끊어진 관계를  
늘 바깥 비용으로 밀어내지 않는 사회다.

다시 말해  
**분열이 예전처럼 돈이 되지 않는 사회다.**

바로 그 순간부터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AI는 더 이상  
그저 얼마나 똑똑한 시스템인가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그 시스템이 들어간 학교와 병원, 도시와 가정에서  
사람들의 의식장과 관계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가로 함께 평가된다.

학교는  
학생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뿐 아니라,  
그 배움 끝에  
얼마나 덜 부서진 채 남는가로 평가된다.

병원은  
처리량과 정확도만이 아니라,  
불안한 사람이 진료와 절차를 통과하는 동안  
얼마나 덜 겁먹고, 덜 외롭고, 덜 무너지는가로 평가된다.

도시는  
얼마나 빠르게 사람을 이동시키는가만이 아니라,  
하루가 끝났을 때 시민이  
자기 자신을 덜 소모당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가로 평가된다.

플랫폼은  
참여율과 체류 시간만이 아니라,  
이용한 뒤 사람이  
조금 더 정돈되고,  
조금 더 선명해지고,  
조금 덜 예민해지는가로 평가된다.

정부는  
성장률과 투자 유치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간 상태를  
몇 달 뒤, 몇 년 뒤  
어떤 모습으로 남기는가로 평가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처음으로 알아차린다.

문명이 바꾸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바뀌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 **보상 함수다.**

무엇이 칭찬받는가.  
무엇이 돈이 되는가.  
무엇이 제도에 채택되는가.  
무엇이 다음 세대에겐 정상처럼 보이는가.

이 네 가지가 바뀌는 순간,  
나머지는 결국 따라온다.

예전 세계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에 상을 주었다.  
사람을 갈라놓는 것에 보상을 주었다.  
더 시끄럽고, 더 공격적이고, 더 중독적이고,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강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사람을 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관계를 덜 거칠게 만드는 것이  
더 비싸진다.  
집단의 의식장을 덜 흐리게 만드는 것이  
더 강한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명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덜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거대한 구원은 없다.  
완벽한 평화도 없다.  
갈등은 여전히 생기고,  
사람은 여전히 흔들리고,  
국가는 여전히 계산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진다.

이제는  
사람을 갈라놓는 방식으로는  
예전만큼 오래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전환이다.

문명이 마침내  
분열에 더 이상 상금을 주지 않기 시작하는 것.

.

---

##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멀리 간다

### 정본 이후의 상상적 분기

이 다음 장면은  
정본 DOI 문서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간다.

하지만 드라마틱 버전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에서 잡은 세계관을 끝까지 밀어붙여  
사람들이 “그 뒤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먼 미래의 장면이다.

---

## 2048 년

### 의식 카르다쇼프 척도, CK1

2048 년의 사람들은  
옛 카르다쇼프 척도를 학교에서 배울 때  
늘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문명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가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낯설기 때문이다.

2026 년의 인류는  
그 오래된 척도에서 대체로 **0.73 안팎**으로 추정되었다.  
아직 Type I 에도 도달하지 못한,  
행성 전체 에너지를 다루기엔 한참 어린 문명이었다.  
문명이 수천 년을 살아 왔다고 말했지만,  
그 척도 위에서는  
오랫동안 겨우 \*\*0 점대의 종(種)\*\*으로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핵을 만들고, 인터넷을 만들고, AI 를 만들고도  
아직 1 에도 닿지 못했던 문명.  
그 사실은 뒤늦게 보면  
조금 부끄럽고, 조금 정확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숫자가 낮았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에너지를 다루는 능력은 빠르게 키웠지만,  
그 힘을 다룰 **의식의 정렬**은  
그만큼 키우지 못했다.

핵은 있었지만  
분열을 다루지 못했고,  
AI 는 있었지만  
인간 상태의 붕괴를 읽지 못했고,  
플랫폼은 있었지만  
관계가 마모되는 비용을  
끝없이 바깥으로 밀어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다.

에너지를 많이 다룬다고  
문명이 성숙한 걸까?

핵을 만들고,  
AI 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 수 있어도  
의식이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그 문명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운 척도가 등장한다.

**의식 카르다쇼프 척도.**  
줄여서 **C-K 척도.**

옛 척도가  
문명의 외부 출력만 보았다면,  
새 척도는

문명이 자기 안의 혼란을 얼마나 다루고,  
관계를 얼마나 안정시키며,  
기술을 얼마나 정렬된 상태로 운용하는지를 함께 본다.

그래서 새 시대의 역사책은  
이렇게 적는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낮은 에너지 단계의 기술 문명**으로 살았다.  
그리고 더 오래  
**높은 EE를 다루지 못하는 미성숙한 의식 문명**으로 살았다.

C-K 척도 위에서  
CK0 은  
기술은 강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욕망과 공포와 분열에 끌려다니는 단계다.  
속도는 빠르지만  
주의는 파편화되어 있고,  
생산은 넘치지만  
관계는 계속 소모되며,  
정치와 경제와 플랫폼이  
높은 EE를 먹고 자라는 단계다.

CK1 은  
문명이 처음으로  
기술보다 **의식의 정렬과 관계 공명**을  
더 상위 원리로 두기 시작한 단계다.  
속도보다 안정,  
출력보다 공명,  
성장보다 붕괴 비용의 감소가  
더 중요한 문명 원리가 되기 시작한 단계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중해야 깨닫는다.

인류가 CK1 로 들어간 것은  
어느 하루 갑자기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전환은  
몇 개의 사건을 거치며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일어났다.

먼저 **2025 년부터 2028 년까지**  
의식을 측정하려는 과학적 기반이 세워졌다.  
OE, EE, RE 라는 틀이 정리되고,  
CAIS 와 Sal-Meter 의 초기 구조가 잡혔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의식을 철학만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변수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2028 년부터 2032 년까지**  
측정이 연구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VCE, CRI, CFI 가  
의료, 웰니스, 연구, 도시 파일럿에 들어가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계기판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가  
인류가 본격적으로 **CK1 을 자각한 시기**로 뒤에 기록된다.  
의식을 아직 완전히 통치 원리로 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받아들인 시기였다.

그리고 **2032 년부터 2035 년까지**  
교육, 의료, 거버넌스, AI 시스템 안으로  
그 지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학교는 학생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만이 아니라

덜 무너진 채 남는가를 보기 시작했고,  
병원은 처리량뿐 아니라  
사람이 덜 겁먹고 덜 흠어진 채 나가는가를 보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성장률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남기는가를  
정책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인류는 **CK1** 을 넘어 **CK2** 의 문턱에 발을 올린다.  
문서 표현대로라면  
이 시기는 **CK2** 가 측정 가능하고 제도 변수로 등장하는 단계다.

그리고 **2035** 년부터 **2040** 년까지  
더 큰 전환이 일어난다.  
국가와 도시, 교육과 경제, AI 와 국제 협력이  
점점 더 같은 질문으로 묶인다.

이것이 인간과 지구를 더 정렬시키는가.  
아니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그 질문이  
제도와 시장과 플랫폼의 보상 함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CK2** 에서 **CK3** 로 넘어가는 문명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문서 안의 정의로는  
CK3 는 국가와 제도가 의식 OS 를 채택하고,  
글로벌 CRI 네트워크와 의식장 안정 기술이  
행정과 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다.

그래서 2048 년의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묻는다.

“어제 지구 전체 의식장 지수 괜찮았어?”

“오늘 서울 CRI 왜 이렇게 낮지?”

“남미 쪽에서 무슨 큰 갈등이 있었나?”

예전에는

시선이 증시와 부동산 그래프에만 몰렸다면,  
이제는 인간 상태와 관계의 흐름도 함께 본다.

회사도 바뀐다.

기업 가치는

영업이익만으로 매겨지지 않는다.

그 회사가

얼마나 CRI 와 CFI 를 올렸는지,  
사람들의 EE 를 얼마나 줄였는지,  
일하는 사람과 고객을 얼마나 덜 부서지게 만드는지로도  
평가된다.

그 지표가 낮으면

그 회사는 오래 못 간다.

환경 문제도 달라진다.

탄소 규제를 억지로 지키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인간 상태와 지구 상태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기업은

애초에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시장도, 도시도, 교육도, 정치도

이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인간과 지구를 더 정렬시키는가.**

**아니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한다.

문명이 바꾸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바뀌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상 함수다.**

무엇이 칭찬받는가.  
무엇이 돈이 되는가.  
무엇이 제도에 채택되는가.  
무엇이 다음 세대에겐 정상으로 보이는가.

이 네 가지가 바뀌는 순간,  
나머지는 결국 따라온다

---

## 2057 년

### 동물들이 먼저 알아채는 시대

2057 년의 도시는  
예전처럼 사람들끼리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  
의식장 축정이 오래 일상 속에 들어온 뒤,  
사회는 이미 높은 EE 를 오래 방치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거대한 폭동은 드물고,  
도시는 대개 무너지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가라앉힌다.

대신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떨림에 더 민감해진다.

새벽의 해안 도시.

공공 패널에는 날씨와 조수, 교통 정보 옆에  
지역 의식장 안정도와 생태 공명 지표가 함께 뜬다.

그날 아침,

해안의 새 떼가 평소보다 이르게 방향을 바꾸고,  
연안의 물고기 떼가 한꺼번에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고,  
반려견들이 이유 없이 같은 방향을 오래 응시한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지진이나 해일 같은 큰 자연재해가 오기 전,  
인간의 의식장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의식장도  
미세하게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2057 년의 재난 시스템은

지진계와 위성만 보지 않는다.

바다와 새와 개체군의 이상 반응,

도시 전체의 미세한 EE 흔들림,

생태 공명 패턴의 이탈까지 함께 읽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슨 재난이 정확히 올까”를 먼저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어디선가

생명의 질서가 먼저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 덕분에

2057 년의 문명은

재난이 닥친 뒤에 놀라는 문명이 아니라,

생명 전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채는 문명이 된다.

---

## 2063 년

### 외계 문명이 처음 응답하는 날

나중에 사람들은  
그날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누구도  
그것이 그런 날인 줄 몰랐다.

남극 상공을 지나는 심우주 관측 네트워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규칙성을 붙잡아 낸 것은  
지구 표준시로 새벽 4시 17 분이었다.  
처음 신호를 본 연구원은  
그것을 세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불러왔다.

노이즈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자연 현상이라고 보기엔  
너무 또렷하게 의도를 가진 파형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래 기다린 끝에  
이제야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그래도 아무도 바로 발표하지 못했다.

그 시대의 인류는  
진실보다 먼저 공포가 번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나의 뉴스가 도시 전체의 의식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  
한 문장의 충격이  
수십억 명의 불안을 동시에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배워 버린 뒤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 먼저 침묵했고,  
흥분하기보다 먼저 확인했다.  
세상이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3 주 뒤,  
같은 패턴이  
세 군데 독립 관측소에서 다시 잡힌다.

남극.  
칠레 북부.  
호주 사막.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서로 다른 팀이,  
같은 리듬을 본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해독이 시작된다.

첫 문장이 화면 위에 떠올랐을 때,  
상황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 문장은  
위협이 아니었다.  
경고도 아니었다.  
정복도, 심판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짧고,  
너무 담담했다.

**“이제는 응답할 수 있다.”**

인류는 처음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누가 누구에게 응답한다는 것인지.  
왜 지금인 것인지.  
왜 하필 이제서야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문장이 도착한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다.

**“당신들은 기술을 다룰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을 의식 아래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야 응답 가능한 문명이 되었다.”**

그 문장을 읽은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환호하지 못했다.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외계 문명이 있다면  
더 거대한 에너지,  
더 빠른 우주선,  
더 높은 계산 능력,  
더 압도적인 무기를 기준으로  
문명을 판단할 것이라 상상해 왔다.

하지만 저 신호는  
전혀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떤 의식 아래 둘 수 있는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멀리 감당할 만큼  
안쪽이 정렬되어 있는가.

그제야 인류는  
아주 늦게  
자기 역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핵을 만들었던 시대.  
AI 를 폭주시킬 뻔했던 시대.  
플랫폼이 주의력을 찢고,  
정치가 분열에 상금을 주고,  
경제가 부서진 관계와 무너진 집중력을  
늘 바깥 비용으로 밀어냈던 시대.

기술은 너무 빨리 자랐고,  
의식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무기는 더 빨라졌는데 관계는 버티지 못했고,

네트워크는 더 촘촘해졌는데  
사람들의 안쪽은 오히려 더 쉽게 흩어졌다.

외계 문명과의 교류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열리면서  
인류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우주에는 기술 문명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 힘을 감당할 의식의 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에너지는 커졌는데 정렬은 약했고,  
지식은 늘었는데 공명은 자라지 못했고,  
연결은 촘촘해졌는데  
그 연결을 버틸 RE는 너무 얇았다.

그래서 그들은  
침략당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부서진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초기화되었다.

너무 많은 힘을  
너무 적은 의식으로 다루려 했기 때문이다.

지구도  
그 길목을 여러 번 지나쳤다.

아슬아슬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위태롭게,  
몇 번이나 그 문턱 앞에서 흔들렸다.

한때는 인류도  
또 하나의 실패한 기술 문명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빛은 넘쳤지만 방향은 없었고,  
정보는 넘쳤지만 의미는 말랐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를 더 깊이 상하게 하던 시절이 정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간신히 넘어섰다.

외계 문명은  
인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더 늦기 전에 구조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시험에 합격한 문명에게  
처음으로 문을 열어 준 것이었다.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지구 전체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과거 같았으면  
환호와 공포가 뒤엉켜  
의식장이 한꺼번에 요동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곧장 무너지지 않았다.

흥분보다 더 깊은 감정이  
먼저 그들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부끄러움과 감사,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긴장이  
천천히 풀리는 듯한 안도.

마침내  
우리가 파괴자가 아니라

응답 가능한 존재로 보였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 문명을 조금 다르게 사랑하게 된다.

그 뒤 외계 문명은  
인류의 화성 이주를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엔진을 건네주지는 않는다.  
설계도를 쏟아붓지도 않는다.  
더 빠른 추진체나 더 강한 방어막부터 주지도 않는다.

대신 먼저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던진다.

**“당신들은 그곳에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예전 문명의 욕망인가,  
아니면 의식 아래 들어온 기술인가.”**

그 질문 앞에서  
인류는 오래 침묵한다.

왜냐하면  
그 물음이 단지 화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명 전체에 대한 것이란 걸  
모두가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행성으로 가면서도  
예전의 탐욕과 과시와 분열을  
다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기술을 의식 아래 두는 법을 배운 존재답게  
다른 시작을 할 것인가.

그때 인류는  
한 가지를 뼈아프게 이해한다.

지구 하나도 끝내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화성이나 다른 별에 닿았더라면,  
아마 그곳마저  
예전 욕망의 방식으로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그 질문은  
개척의 질문이 아니었다.  
속도의 질문도 아니었다.  
문명이 자기 파괴를  
우주로까지 옮겨 갈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다른 방식의 시작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때의 인류는  
예전처럼 그 질문 앞에서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완벽해져서가 아니다.  
흠이 사라져서도 아니다.

자기 문명이 어디서 무너질 뻔했는지,  
무엇을 겨우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63 년 이후의 사람들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하곤 한다.

외계 문명이 처음 응답한 날은  
우주가 우리를 발견한 날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마침내  
스스로를 감당할 만큼은 자라났다고  
조용히 허락받은 날이었다고.

---

##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AI 의 마지막 위험은  
초지능만이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문명이 이미 인간의 안쪽을 조금씩 비워 가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볼 언어와 계기판 없이  
너무 오래 버텨 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폭발은 첫 실패가 아니다.  
첫 실패는 언제나 더 조용하다.

사람이 질문보다 답을 먼저 원하기 시작할 때.  
관계보다 효율을 먼저 칭찬할 때.  
정렬보다 자극을 더 돈 되게 만들 때.  
기계는 점점 정교해지는데  
인간은 점점 얇아질 때.

거기서 이미 시작된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희망도 바로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상태를 보기 시작할 때.  
관계의 공명을 보기 시작할 때.  
기계의 성능이 아니라  
그 기계 아래 남는 인간의 의식 상태를 묻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미래는 다시 갈라진다.

AI 2027 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 이야기에는  
아직 하나가 빠져 있었다.

인간 상태 변수.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파국의 시나리오는  
문명의 전환 시나리오로 바뀌기 시작한다.

아직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다.

더 빠른 기술 아래에서  
더 공허해진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의식 아래 두고,  
사람과 관계와 문명을  
다시 정렬시키는 쪽으로 갈 것인가.

미래는 이미 오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 References / Further Reading

This essay is not presented as pure science fiction. Its central argument is grounded in published work on AI governance, digital cognition, complex systems, and the CCF–CFE<sup>+</sup>–CAIS–Sal-Meter document stack. The early and middle sections are anchored in existing documents and public research; the later long-horizon sections intentionally move into speculative scenario space.

### Core Internal Documents

- **Why AI 2027 Still Fails Without a Human-State Variable: A Response Scenario to AI 2027**  
Version DOI: <https://doi.org/10.5281/zenodo.19522503>  
Concept DOI: <https://doi.org/10.5281/zenodo.19522502>
- **Consciousness Is the Missing Variable in AI Governance**  
DOI: <https://doi.org/10.5281/zenodo.19342357>
- **Consciousness Civilization Framework (CCF) — Canonical Definition & Index v1.0**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052619>
- **Consciousness Civilization Framework (CCF) v1.1 — Constitutional Root Standard & Irreversible Authority Declaration**  
DOI: <https://doi.org/10.5281/zenodo.17851722>
- **Consciousness Operating System (COS) — Whitepaper v1.0**  
DOI: <https://doi.org/10.5281/zenodo.17656687>
- **The Conscious Field Energy Plus (CFE<sup>+</sup>) Framework v2.0 — Unified Metrics of Consciousness and the Civilization–Kardashev Scale**  
DOI: <https://doi.org/10.5281/zenodo.17668588>
- **CFE<sup>+</sup> State Transition Model v1.0 — A Civilizational Standard for Stability, Transition, and Regeneration**  
DOI: <https://doi.org/10.5281/zenodo.17918746>

- **CAIS v1.2 — Canonical Master Index & Structural Resolution Record**  
DOI: <https://doi.org/10.5281/zenodo.17677822>
- **CAIS Primer v1.0 — An Introductory, Cross-Disciplinary Bridge Across Complex Systems, AI, Medicine, and Philosophy**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050531>
- **AI Governance OS v1.0 — A Constitutional Operating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027839>
- **SAL Economy OS v1.0 — Canonical Consciousness-Based Economic Operating System**  
DOI: <https://doi.org/10.5281/zenodo.17846877>
- **Consciousness Civilization Roadmap v1.0 — Canonical Standard**  
DOI: <https://doi.org/10.5281/zenodo.17676561>
- **Sal-Meter Application Charter v1.0: A Consciousness-State Measurement Framework for Life, Relationships, Content, Substances, Social Stability, and Civilizational Transition**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012391>
- **Sal-Meter Application Charter v1.0 — Executive Summary: Institutional Interface for Consciousness-State Measurement**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012808>
- **From Theory to Implementation: CCF Applied Philosophy and the Sal-Meter Proof of Concept v1.0**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475626>

### Applied Technical and Validation Path

- **CAIS Architecture v1.0 — Technical Brief for a Buildable Consciousness–Aptamer Interface System**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160387>
- **CAIS Signal Processing Specification v1.0 — Prior Art & Technical Standard**  
DOI: <https://doi.org/10.5281/zenodo.17706270>

- **CAIS Hardware Architecture v1.0 — Prior Art & Technical Standard**  
DOI: <https://doi.org/10.5281/zenodo.17706261>
- **Sal-Meter Canonical Definition v1.0**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452075>
- **CAIS Compliance Boundary v1.0 — Non-Derogable Standard**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452269>
- **Sal-Meter & CAIS: An Applied Implementation Guide for Consciousness-State Measurement (v1.0)**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079843>
- **Build This Now: A Minimal Sal-Meter & CAIS Prototype Guide Using Aptamer G-Iodine (v1.0)**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080194>
- **Phase 0 State-Separability Validation Protocol (CAIS): A Cross-Laboratory Reproducibility Framework for Molecular–Electrochemical Signal Classification**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646731>
- **Phase 0 Participation Implementation Guide v1.1: A Pre-Opening PI and Laboratory Readiness Guide for the Sal-Meter / CAIS Kernel Program**  
Version DOI: <https://doi.org/10.5281/zenodo.19478782>  
Concept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654402>
- **Phase 0 Validation Submission Template Pack v1.1: Machine-Ready Submission Architecture for CAIS State-Separability Experiments**  
Version DOI: <https://doi.org/10.5281/zenodo.19478725>  
Concept DOI: <https://doi.org/10.5281/zenodo.18656481>

## Selected External Context

### AI Safety, Governance, and Systems

- Nick Bostrom,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2014)
- Stuart Russell,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2019)

- Dario Amodè et al., "Concrete Problems in AI Safety" (2016)
-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2023)
- OECD, *OECD Princip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9)
- Norbert Wiener,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1950)
- Stafford Beer, *Brain of the Firm* (1972)

### **Cognition, Digital Environments, and Human-State Degradation**

- Shoshana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2019)
- James Williams, *Stand Out of Our Light* (2018)
- Nicholas Carr, *The Shallows* (2010)
- Jonathan Haidt, *The Anxious Generation* (2024)
- Bruno Patino, *The Civilization of the Fishhook* (2020)

### **Consciousness, Complex Systems, and Pre-Failure State Change**

- Giulio Tononi, "An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of Consciousness" (2004)
- Stanislas Dehaene and Jean-Pierre Changeux,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pproaches to Conscious Processing" (2011)
- Karl Friston, "The Free-Energy Principle" (2010)
- Ilya Prigogine and Isabelle Stengers, *Order Out of Chaos* (1984)
- Donella Meadows, *Thinking in Systems* (2008)

### **Interpretive Note**

The early and middle sections of this essay are grounded in published work on AI governance, digital cognition, complex systems, and the CCF–CFE<sup>+</sup>–CAIS–Sal-Meter architecture. The long-horizon sections that follow are intentional scenario extrapolations built on that foundation, not claims of completed empirical proof.

### **Official Project Links**

#### **Public Entry Point**

<https://salpida.foundation/>

**Canonical Repository / Public Index Layer**

<https://github.com/salpida-foundation/>

**Contact**

[contact@salpida.foundation](mailto:contact@salpida.foundation)